

2020학년도 중등 입학시험 대비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 전략

적중률 100%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

합격지수100

권지수 교육학 합격 가이드 BOOK

Contents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적중률 100% 합격 가이드

- 1차 교육학 논술 시험 후기 · 5
- 권지수 교육학 연간 강의계획 · 23
- 중등임용 시험일정 및 출제범위 · 27
-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 31
- 교육학 논술 탁월한 만점 전략 · 35
- 교육학 논술 모범 답안 · 45
- 교육학 논술 Thinking Map · 77

Memo

적중률100%, 탁월한 만점전략!!!

- 교육학논술은 권지수가 진리이다 -

1. 모의 문제: 특별히 강조한 주요논점이 액면 그대로 적중 !!!
2. 마지막 짚기: 특별히 짚고 또 짚은 논점들만 골라서 출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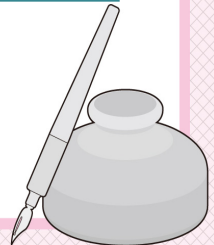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MISSION
COMPLETE**

만점 미션 완료!!!

[핵심이 명쾌한 강의] 권지수 교육학 논술

- ① 강의 : 박문각 임용고시학원 / 티치스파
- ② 네이버 블로그 : <http://kwonjisu100.blog.me>
- ③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kwonjisu100>



PART 1

1차 교육학 논술 시험 후기



1차 교육학 논술 시험 후기

2018학년도 1차 교육학 논술 시험 후기

100% 적중

선생님 100%적중. 교육학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ㅎㅎ

ID: Egon○○

교수님

시험 끝났어요 교수님 사랑해요 ♥♥ 갖지수

ID: 누리

교수님 사랑해용~~

교수님 덕분에 교육학 잘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합격한다면 교육학 덕분입니다! ><

어제 응원문자도 힘났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ID: 꽃길만걸자

저도 사랑합니다 ><

몇년동안 10점을 넘어본적 없고 과락까지 맞아본 저에게...

뭔가 최고 점수를 받을 것만 같은 기대감에 감사 글을 남깁니당 ㅎㅎㅎ

교수님 최고예요>< 감사드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ㅎㅎ

저도 사랑합니다>< ㅋㅋㅋ

ID: 승승장구

대박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작년 교육학 과락이었던 제가 자신있게 교육학 잘봤어요^^

전 제가 선천적으로 교육학 머리가 없는줄 알 정도 였는데 ^^

올한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ID: 한번만 하자

교수님...!!

교수님의 통찰력 덕분에 4개 문제 답 다 쓰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ID: 푸우린

감사합니다~~~

교육학 네 문제 모두 아는 문제여서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권지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임용 준비 하는 분들 교수님 수업 듣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권지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ID: happy

교수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신거 다나와서 놀랬어요~~

ID: kkk〇〇

감사합니다+.+

문제보고 교수님 얼굴이 달덩이처럼 떠올랐어요 감사해요 ㅠ-ㅠ

ID: hjin〇〇

교수님

작년도그렇고 올해도그렇고
교육학 치고나면 항상 교수님얼굴이 떠올라요 멬게멬게ㅋㅋㅋ
진짜진짜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합격하면 찾아뵙겠습니다~~

ID: irum〇〇

교수님 강의 넘 감사합니다

강조하셨던 부분이 나오기도 했고 워낙 퍼펙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ID: 초코마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1년 동안 세심하게 지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에서 많이 나와서 다행히 잘 풀 수 있었습니다! ^^

ID: 직강생

교육학 논술, 권지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7-8월 현장 출석하면서 권지수 교육학 처음 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학 강의를 들은 바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전공이 자신 있어도 교육학에서 일정 점수가 안나오면 그만큼 불리하니깐요. 어쩌면 과락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7-8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3주간 수강하다가 교수님 강의가 '납득이 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이라는 확신을 갖고, 인강으로 돌렸습니다. 전공과 병행하면서 현장 출석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8월에 핵심터치 중요 내용 숙달하고, 9-11월 모의고사 30회 분량의 문제 [풀이-다시고민-해답정독-인강-틀린 논점 확인-주요 모의고사 다시쓰기] 과정 거쳤고 4개 논점 모두 최선을 다해 써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지수 교수님. 내년엔 초대박 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교사로서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D: 장수○○○

잇부터 시작이야

2019학년도 1차 교육학 논술 시험 후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만 쓱쓱 나왔어요. 대박 ! 감사합니다!! 역시 갖지수님입니다!!!!!!

ID: 왈○○

교수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학을 너~~무 몰라서 교수님강의만 열심히 들었는데
1교시 끝나고 만점인줄 알았어요... ㅎㅎㅎ

ID: 플○○

교수님 감사드려요^^

교육학 만점을 두고 공부했는데
흑흑
공부한 게 다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감사감사용!!

ID: 휘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일병행이라 교수님 모고 강의 집중해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다루신거 다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합격하고 다시 감사 인사드릴게요?

ID: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늦게 교육학 시작해서 막막했는데
소문 듣던 대로 짱이십니다! ♪
감사합니다 ☺

ID: 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강의 들을 때마다 이해와 더불어 쓱쓱 암기가 되도록 해주시는
존경심 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모습 감동이었습니다.
문제보고 떨리는 와중에도 정말 교수님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에 강조하신 신뢰도 전달 다시 한번 봤는데 ?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교육학계의 1인자 되시길 바라요 ㅋㅋ

ID: 논술○○

교수님 정말 놀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쟁점목록 체크해 주신거 다 나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모두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ID: 꿈○○○○

교수님 사랑해요 ♥

덕분에 시험 잘 치렀어요. 교수님 사랑해요 ♥♥ 갖지수

ID: 누○

교수님 감사합니다^^

뒤늦게 교육학 시작해서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며 힘냈습니다.
강조해주신 부분들 나오는데 교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ID: 임고○○

아버지~~

시험 잘 보고 나왔습니다. 시험보는 내내 선생님이 보내주신 마지막 문자 다시 되뇌이며
만발기능인의 태도를 갖추고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쓰고 왔어요!!!
20점 길만 견자!!

ID: 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시험지를 보자마자 교수님 얼굴이 시험지위에 떠올랐다는...
작년에 누군가가 쓴 합격 수기를 보았었는데요~!
정말 오늘 그러했습니다.

올해는 누군가가 가장 먼저 카페에
"아버지~~~~~" 라며 글을 쓰셨던데
제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ID: 열심히○○○

교수님 감사드려요^^

교수님 1년 동안 좋은 강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정말 최고
입니다^^

ID: 데○○

중등임용 합격수기



[1] 최종합격수기 이제야 올립니다 ♥

2018년 가정 합격 수기입니다! 지수쌤 덕분에, **교육학 19.33**을 받았어요~^
교육학 공부에 대해서만 수기 남길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2018년 가정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입니다. 합격수기를 미리 올리려했
는데, 이제야 올리게 되었네요!

저는 **우선 2명 뽑는 지역으로 응시**를 하였고요! **최종 합격**까지 하였습니다. 최종합격을
하기까지, 교육학 권지수 교수님과, 교육학 스터디원들이 도움이 가장 컸어요^^ 기간제를
하면서, 올인은 한적이 없어서 작년 한해 올인해보자 하고 노랑진으로 무작정 왔습니다.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았어요. 17년도 교육학
점수는 14.66 이었구요, 올해는 19.33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17년에 여름 한달정도 쌤 교육학 강의를 듣고, (중요한거를 잘 짚어주시지 않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적응률도 실상 낮더라고요 TTT 내용설명도 너무 간략했음)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권지수 선생님을 택했습니다.(꿈꿈하셨고 명쾌한 답변과 내용들이
쏙쏙들어왔어요)

그 선택은 역시나 탁월했습니다. 저는 주변 임고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권지수 선생님을
강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야합니다....! (저의 갖지수님^^)

그럼 제가 교육학 공부를 했던 방법을 작성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기간제 병행하면서 교육학 공부를 했던 알았던 지식이 권지수 교수님의 수업을 처음부
터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가 되어갔습니다. 세세하게 교육학을 공부한건 처음이었어요.

권지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쏙쏙, 너무나 명쾌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쉬워졌습니다. 저의 교육학 암기 비법을 '칭킹'입니다. 사람마다 암기법이 다르겠지만, 우
선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후, 앞글자를 따서 칭킹으로 교육학 모든 것을 외웠습니
다.(두문자적극활용) 또한 **교수님께서 주시는 별따지 ★★★개, ★★개, ★개도 늘 구조화
하여 암기**하려 했습니다.!!! 이번년도 시험에서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별따지 3개에서 문
제가 나왔습니다. (적중률 100%로 입니다)

〈교육학 공부법〉

〈3월~4월〉

- ▶ 첫날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교육의 목표 및 기능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권지수 교육학' 책을 교재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면 저는 **그날 수업한 내용을, 강의실에서 암기**를 하고 갔습니다.
- ▶ 교수님과의 1:1 암기 테스트는 정말 효과가 컸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내가 암기한걸 이야기해야할 때는 긴장도 되지만, 이걸 통과해야 집으로 갈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제가 의지가 약해 강제성이 있어 좋았어요)
- ▶ 오전 9시부터 오후6-7시까지 교육학 강의 및 암기를 한 후, 저녁식사를 간단히 한후, 독서실에 간 후 오후9시까지 교육학 복습을 또 했습니다. 꼼꼼하게 교재를 읽어보고 또 다시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저는 월, 화는 최대한 교육학에 올인하자는 마음으로 공부 했습니다.
- ▶ **암기를 할 때에는 빈 공책에 목차를 그려본 후, 세부 내용을 덧붙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5월~6월〉

- ▶ 5,6월에는 3,4월 이론내용을 토대로 객관식 기출문제분석 강의를 하셨습니다.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에서 나온만한 논점이나 중요한 내용을, 교수님께서 눈송형태로 쓸 수 있도록 문제를 내주셨어요.
- ▶ 이 시기때에는 권지수 강의를 들으시는 타고교 선생님과 **전화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전화스터디는, 밴드로 범위를 정한 후, 서로 키워드를 물으며 내용을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문중심교육과정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 하면 대답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7월~8월〉

- ▶ 7월 강의부터는 **무.조.건. 들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강의에서는 교수님께서, 눈송 쓰시는 전략(?)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이때쯤되면 교육학 이론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눈송으로 써내려가는 게 어려워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7월 강의에서 교육학 서론, 본론, 결론, 쓰는 방법을 듣고 나니, 매주 모고 쓰는 것이 쉬워졌어요.
 - ▶ 모고 쓰고 난후 교수님께서 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타 교육학 강사선생님들은 조교생들이 채점을 한다고 하잖아요? **권지수 교수님은 직접 본인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이것이 가장가장 좋았던 점**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고쳐야할 점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고 아래 good이라는 글자를 기다리게 되더라구요^^)
 - ▶ 이 때는 **'핵심쑥쑥(핵심터치)**'라는 교재로 바뀌게 됩니다. 파란색 교재에, 3-4월 교재를 압축해놓은 1권의 책으로 볼 수 있게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쑥쑥(핵심터치)책이 간략하고 한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시험 직전까지도 이 책만 들고 갔습니다!**
 - ▶ 핵심쑥쑥(핵심터치) 교재에 나온 진한글씨체는 무조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목차가 많이 구조화되어서, 목차구조화된거를 펼쳐놓고, 백지에 떠오르는 내용을 써보도록 노력했어요. 별딱지가 중요한 순서 위주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 7월부터 교수님이 짜주신 **스터디원들과 교육학 스터디**를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 수업 후, 각자 공부한 시간을 갖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5-6개 정도 포스티잇에 작성하여, 하나씩 뽑아 그 이론을 설명하는 식이었습니다. (포스티잇이 사라질 때까지 스터디를 했어요. 보통 저녁 7시반에서 8시전에 끝났습니다) 이 스터디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스터디원들도 우선 너무나 좋고!!! 말로 하는 스터디를 하다보니, 저절로 이해가 되고, 글로 쓰는 것과는 또다른 공부법이였어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다른 스터디원들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주면서 시험 전주까지 **서로 보완**하였습니다.♥

<9월~10월>

- ▶ 9-10월 모의고사때부터는, 매주 월,화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게 09:00 오전 교육학 보는 시간에 맞춰 쓰게 됩니다. 범위도 전 범위가 섞여있어, 어렵지만, 7,8월에 논술쓰는 방법과 이론을 다져 놓은 것을 토대로 쓰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모의고사가 끝난 후, **교수님의 모의고사 풀이가 있어요! 아주 아주아주아주... 명쾌해서 수업듣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어요.** 또한 **교수님께서 문제를 정말 잘내시는데요,** 스테디원들과도.. **늘 갖지 수님이라 감탄했었습니다.**
- ▶ 권지수 선생님은 **문제 형식도 읽고 형식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내주십니다. 또한 다양한 문제 형태를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본문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쓰는게 정말 쉬워졌어요.
- ▶ 저는 모의고사 쓸때 보통 1시간을 주는데 저는 논점파악 및 쓰는 것까지 30분정도 이내로 썼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1시간이 빠듯했습니다.(너무 긴장한 탓인듯 해요)
- ▶ 모의고사 및 교수님의 수업이 끝나면 스테디원들과, 그날 나왔던 논점에 대해서 의논하고 피드백했습니다. 같은 논점이라도 다른 내용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 나누는 것이 참 좋았어요^^
- ▶ **9월부터 작은 미니 수첩에, 그날 배운 모의고사 논점을 간단하게 다 적어서 암기하려 노력했어요!**

<11월>

- ▶ 11월에는 전공이랑 병행하면서 교육학을 자칫 소홀하게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월,화는 오전에 교육학을 투자하고 오후에는 무조건 전공에 올인했어요.
- ▶ 시험 일주일전에는 **'핵심속삭(핵심터치)'교재를 토대로, 한글워드파일로 굵은 글씨와 중요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 ▶ 시험 전날에 핵심터치를 꼼꼼히 1회독 한 후, 목차 토대로 계속 인출하려고 노력했어요.

<시험당일>

교육학 시험자를 받고, 어!!!! 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다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교수님께서 워커가 현재 살아있다! 이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하시면서 별딱지 2개를 3개로 옮겨주셨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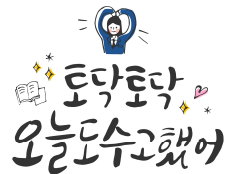
그래서 워커의 속의모형을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첫문제부터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PBL문제도 워낙 강조를 하셨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쓸 수 있었어요! 또한 절대평가, 성장참조평가, 능력참조평가도 강조하셨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절대평가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을 제대로 못써 점수가 깎인듯 합니다.ㅠㅠ 동료장학과 활성화 방안은 시험 몇주 전에 그대로 교수님이 문제를 내주신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적중률 100%!!!!!!**

시험 당일은 모고 연습했던 때보다 확실히 떨렸어요. ㅠㅠ 늘 30분만에 모고를 썼었는데, 이때는 꼼꼼히 보느라 1시간을 꼭 채웠던 것 같아요! 교육학을 잘봤다는 생각에 그다음 전공 문제 풀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서 TTT... 주저리주저리 쓰게되네용..^^
아참!!!! 저는 시험이 다가오기 2달전에, 교수님께
OO쌤!, 수석합격을 기원합니다 - 권지수 라는 글귀를 써달라고해서
매일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놓고 부적처럼 보면서, 여르공했습니다!!!!
이 부적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답변해드릴게요!!!!!!

일년 권지수 교수님만 믿고 가시면 무조건 교육학 고득점입니다~!!!!!!!!!!!!!!!





[2]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면 너도 나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2018 인천광역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유안나입니다. 저는 이번 2월 졸업예정자로 시험에 응시하여 초수로 합격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2월 22일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으로 지난 1년중 1학기는 학부생처럼 교육학과, 전공과목 수업을 들었고, 2학기는 논문을 쓰고 발표(임용3일전 논문발표,;;)를 동시에 하느라 공부시간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약조건이었지만 저희 과목은 임용티오가 많이 안 나는 과목이기도 하고, 시험도 자주 없어서 저는 티오가 나면 무조건 한번에 붙는다는 각오로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약조건에도 기적처럼 합격했던 것처럼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힘든 수험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여 이렇게 합격수기를 올립니다.

<1~2월>

(이때는 회사를 다니던 시기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했는데 일하면서 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시기입니다.)

박문각 권지수 교육학 커리큘럼 따라가기

(교수님의 깔끔한 자료스타일이 좋아서 수강을 결심하였고 샘플강의 때도 깔끔한 강의에 이끌려 교수님 수업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느라 시간이 안 되어 어쩔 수없이 일요일반을 수강하였습니다.

1월1일 첫 개강, 한 시간 먼저 교실에 도착해서 노량진의 분위기를 음미하였습니다. 1월부터 5~6월까지의 일요일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 수업의 장점은 수업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따로 스터디가 필요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약 한 시간 후 교수님 앞에서 암기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수업 끝나고 바로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배운 내용을 바로 암기하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학 수업 초기에 기본이론반에서 개요를 짚 주어 주고, 점점 반복하고 정교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월> (회사를 그만두고, 노량진으로 이주하여 본격 고시생의 길을 걷다.)

교육학은 심화이론

(3월은 학교가 개강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과목은 사실 3월부터는 임용 최종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합류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저희 과목은 전년도에 임용시험이 없었던 하지만 재수생분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시기일 것 같아서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임용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여 전공교육론&교육학 등에서 비중이 높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을 수강신청하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권지수 교육학 3~4월 심화이론반 수업은 반복 및 정교화 수업이었습니다.

1~2월 수업때 내용을 다시한번 다루기때문에 비슷한 것 같으면서, 더 깊게 다루므로 자신감이 있었다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졌다가 하곤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같이 공부하는 쌤들에 비해 암기를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기를 가지고 일요일반에서 못 외우면 화요일 (월화반)수업 끝날 때쯤 나와서 암기하고 외울 때까지 암기하고 집 가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교수님 수업을 녹음해서 들었는데, 한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되어서, 학교수업 오가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에 녹음한 부분을 다시 듣고, 반복하였습니다. 이때는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물흐르듯 들었습니다. 다시 들으니까 안들렸던 부분도 들리곤 하였습니다.

〈5~6월〉

(여전히 학교수업을 들으며, 논문을 미리 조금씩 작성하기 시작. 350부이상의 설문지 돌리기 완료)

이것 역시 교수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월화반으로 전환하여 교육학하는 시간 비중을 늘였습니다. 교수님이 임용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이 해주시는데 이때 제 머릿속의 오개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업 끝나고 매일 암기테스트를 하였는데 잘 외우는 타과목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셔서, 경쟁심을 가지고 암기하려고 아등바등하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수강하시는 선생님과 추가로 매일 한문제씩 문제를 풀어 카톡방에 인증하여 올리는 작업으로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7~8월〉

같은 전공 선생님들을 교육학 수업에서 마주치다! 긴장감은 두배! 집중력도 두배!

모의고사 수업이 개강되는 7,8월에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글로 풀어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공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권교수님 수업의 장점이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이론강의 반복도 대충하는 법이 없으셔서 이때도 이론을 까먹지 않게끔 계속 반복하여 이론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 학교에 다니다 보니 같이 1월달부터 공부하시던 쌤들에 비해 실력격차가 월등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서 자존감도 하락하고 괴로워해서 혼자 울며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수강생들이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권지수 교수님의 탁월한 강의력과 고�퀄리티 자료들이** 아무래도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같은 과목 선생님들과 함께 수강하다 보니 덕분에 저는 7~8월 여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긴장하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업되기 5분전까지 학원에 도착하곤 했는데, 1시간 먼저 학원에 도착해서 전공이나 교육학 등을 복습하였습니다.

전화스터디

이 때 가장 친했던 교육학 수업을 같이 듣는 영어쌤과 전화스터디를 하여 아침에 하루 30분~1시간씩 서로 외운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고시원에 혼자 살고 저질체력이다 보니 선생님이 아침마다 일찍 모닝콜해주셨고 전화스터디를 통해 저의 오개념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협동학습의 효과인지 선생님은 저를 가르쳐주시면서 자신의 지식을 정교화하고, 저는 간혹 선생님이 빠트리는 개념을 설명해드리며 교육학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9~11월〉 (학교에서는 논문마무리, 임용시험3일전에 논문발표를 하다)

교육학은 철저하게 권지수 교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9월부터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교수님도 학생들 관리, 모의고사 출제 등으로 매우 바빠셔서 상호작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월부터 함께해 온 친한 쌤들 미술쌤, 조리쌤, 영어쌤 등 든든한 실력자쌤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어려운 부분은 함께 공부하고 암기를 체크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조금만 더 암기를 정교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라고 조언해주실 때마다 내가 정말 못하는 건가하고 매번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교과교육론 공부를 같은 전공의 다른 교육학 수강생들과 하다 보니, 내가 재수생, 삼수생 선생님들에게 설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못 하는게 아니고 **권지수교육학을 수강하시는 쌤들이 반복된 훈련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작아보였던 것이었습니다 ^^;**

11월 뭔가 아쉽지만 마무리!

저는 교수님과 풀어본 모의고사 문제와 교수님이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신 전년도 강의 속의 모의고사를 인쇄하여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시험 전까지 계속 반복하여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수업 마지막에 ‘핵심쟁점목록’을 과목별로 키워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암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정말로 보통 교육학문제 중 1번 논점은 틀리는게 대다수라고 하였는데 막상시험장에 가보니 **1번 논점부터 4번논점까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하신 그대로 나와서 저는 1교시부터 차분하게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전략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초수동안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한 것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사 등 응시시 필요한 자격은 미리미리 해두자.

임용시험을 응시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전해에 미리 한국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 놓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없으신 분이 계시면 최대한 빨리 응시자격을 갖추고 시험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합격한 지인에게 조연구하기, 카페의 합격수기 꼼꼼히 읽기, 합격설명회 찾아가기

먼저 임용에 합격한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무작정 아무 준비없이 찾아가서 질문하여 혼나기도 혼났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공부하는 동안 질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한 선생님께서는 제게 공부하셨던 책과 서브노트 등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정신이 나태해질 때 따끔히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2차준비할 때 특히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수업 실연 등을 피드백 받으며 구체적으로 지도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구체적인 공부를 세우기 전에 합격수기 등을 카페나 출간된 서적을 통해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중 가장 공통되는 비법들을 추리고 나의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찾아 시도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게 되면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구조화 맵을 만들고, 단권화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카톡공부인증, 생활스터디로 공부하는 습관들이기

저는 임용시험준비와 동시에 1년 공부계획표를 작성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카카오톡 하루 계획인증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약 3~4명으로 구성된 선생님들과 함께 기상인증과 동시에 하루 공부계획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이는 매일 단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므로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반기때부터는 생활스터디를 구해 함께 자습실에 출석하는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독서실은 돈이 들기도 하였고 간혀있는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인 학원 자습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오전 8시까지 자습실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여 서로 기상을 체크하고 혼자서 자습실에 가면 게을러지기 마련인데 다른 선생님과 함께 강제적으로 자습실에 가서 공부를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4) 공부시간을 위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수험생에게는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먹는것도 잠자는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컵밥 같은 것 보다는 고시텔 건물에서 운영하는 고시식당에 정착하여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피고시텔의 오르막백반) 가족들이 운영하여 깨끗하고 친절하고 건강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계가 가본 고시식당에 비해 깔끔하고 입맛에 맞았습니다.

또한 저는 4월부터 10월까지 노량진에 있는 휘트니스 클럽에 다니면서 매주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였습니다. 힘든 고시생활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하루 1시간씩 건전하게 운동하며 움직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해지는 느낌이라 체력을 유지하며 공부를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한 미용쌤과 함께 운동했는데 그분도 지역수석 합격!) (또한 가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노량진 코인 노래방에 가서 혼자 신나는 걸그룹 노래를 부르며 해소 하였습니다. ^^)

5) SNS는 근절!!

저는 블로거 &뷰티유튜버 출신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까지 안하는 SNS가 없는 소통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SNS가 방해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한 마음 가지고 모든 계정을 공부하는 동안 비활성화하고, 공부에 필요없는 카톡방은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전부 나갔습니다. 일년동안 딱 몇개월만 사람들과 멀어지면 됩니다. 이때 잠깐 친한 지인들과 헤어져 있다고 인연이 영영 끊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응원해 줄 것이므로, SNS는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은 다른 사람들이 뭐하고 사나 궁금하기도 하였는데, 점차 오프라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의 생활은 궁금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저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저의 공부?떡방일기를 기록하기위해 블로그에 가끔 사진을 업로드 하기는 했습니다.^^)

6) 능력을 믿되 자만하지 말고 완전학습 하자.

전 교육학을 공부할 때 항상 덜 외워지는 것 같아서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차 실력이 늘고 있었지만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빠르게 성장하니까 나의 성장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초조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완전학습을 위해 더 많은 시간 노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수생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은 안나와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수생은 사실 뭐가 중요하고 안중요하고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학습을 하여 빈틈없이 공부하여 시험당일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9월10월 즈음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다 싶으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봐도 교재를 봐도 이게 어느 전공서의 어디파트에 쓰여져 있는지 눈에 보이고, 중요한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실제 임용 시험 볼때도, 아! 이 문제는 내 자료 어디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하고 보이는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7)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전공 - 저는 스터디원들을 만난 것이 대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초수였지만 마음맞는 쌤들과 만나서 서로 감추지 않고 공부했던 것이 저를 합격으로 인도해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다시 돌아봐도 이 선생님들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찔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과 저는 정말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전공서 등을 서로 도움될 부분을 복사하여 나눔하고 자료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스터디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왔습니다. 스터디 장소를 노랑진 뿐 아니라, 건대, 동대문, 신당동, 왕십리 등등으로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여 공부를 뽀세게 하고 끝나고나서는 선생님들과 맛집탐방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맛있는 고깃집(신설동 육전식당, 왕십리 땅코, 신당동 그릴1492 등) 찾으러 다니고, 스터디사진도 찍고 소소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이 저에겐 오히려 공부하는데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스터디 할 때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끝나고는 놀고, 다시 “아 다른 수험생들은 이렇게 안 놀텐데,, 널부터 열심히해야지” 하는 반성을 반복했던 것이 다음 날 정신차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학 - 교육학도 마음 맞는 선생님들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재수, 삼수 이상의 열정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수업한 내용을 암기하고 서로 암기테스트를 해주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었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할 때 에이스역할을 하는 선생님을 옆에 두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언제든지 여쭙어 봄으로써 저도 바로바로 지식을 채우고, 상대쌤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저에게 설명함으로 인해 정교화 하여 서로에게 이득이 되어야 합니다.

8) 내가 선택한 학원 교수님을 믿고 가기

간혹 수험생활을 하다보면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내가 선택한 교수님이 맞을까 하는 불안감과 다른 스타강사교수님은 어떻게 가르칠까, 다른 강사들의 자료가 더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량진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오로지 선생님의 합격을 위해 연구하시며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신 전문가 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해 직접 만나 빈 교육학의 권지수 교수님, 전공 교수님께서 저의 합격을 위해 정말 몰심양면으로 힘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과제면 과제 암기면 암기 하라는 대로 그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9) 교육학 전화스터디

매일 전화로 30분~1시간정도 교육학 암기체크를 하였습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암기한 내용을 인출하고, 인출이 안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보면서 빈틈을 채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 녹음해서 듣기

저는 1학기때는 매주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왔다갔다 노량진에서 학교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동시간이 짧지 않아서 저는 교육학 교수님의 직강수업을 녹음한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유머에 같이 따라 웃기도 하고 아 이때 이런 상황이 있었지~ 하며 다시 회상하며 상황과 같이 이론을 암기하곤 하였습니다. 간혹 당시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다시 들어보니 교수님 수업이 명료하고 깔끔한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피식 웃기도 하고, 다시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며 이동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11)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말자 (1년학원비보다 더 싸다)

저는 임용시험을 보기 전부터 교보문고 상위1%고객이 될 정도로 책을 구매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그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 중 절대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보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책이 있으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먹을 것을 사먹는 것은 뱃살을 찌게 하지만, 책을 사서 읽는 것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12) 스터디 할 때는 보안유? 철저히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는 전부 주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개월의 짧은 수험기간을 보면 임용시험은 경쟁을 통한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본 바 절대 사람은 혼자 힘으로만 잘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제 합격의 비결은

저와 함께한 선생님들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합격을 위해 도움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저와 1차 공부를 한 전공, 교육학 선생님들은 전부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8년도 임용합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셨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과는 함께 합격해서 동료로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료를 아낌없이 공유하였습니다. 나 혼자의 자료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자료를 공유하니 자료가 배가 되고 얻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경쟁자 뿐 아니라 스터디원의 경쟁자도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여 의리를 지키고자 자료 보안에 철저하였습니다. 우리 스터디원들의 핵심병기 등을 소중히 하고, 우리 울타리 안에서는 아낌없이 퍼주어, 나도 합격하고, 스터디원들도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13) 운때가 맞았다. 늦게 피는 꽃은 오래 간다.

저는 제가 절대 혼자 잘나서 합격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합격을 빌어주고 합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보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량진학원에서 교육학과 전공교수님, 그리고 임용공부를 위해 배려해주신 대학원 전공주임교수님, 그리고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모님, 연락이 안되도 배려해주고 응원해준 친구들, 함께 힘든 길 잘 싸워준 스터디원들.

한분 한분이 좋은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끝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버텼고, 올해 운때가 맞았기 때문에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감사합니다.

비록 초수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렸지만, 이 길을 가기위해 저는 대학을 한번 더 졸업하고, 대학원에 졸업하고, 그 사이에 회사와 현장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돌고 돌아 오는 동안 부족한 부분을 차곡차곡 채우며 단단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전에 저는 회사 취업을 위해 서류광탈 만 약 80번이상 한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남들 쉽게 만다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한번에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좌절하고 무서웠고 부족한 스펙에 자존감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살면서 단 한번에 무언가 합격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정말 저에게 의미있고 감사합니다.

재수생, N수생 선생님 등

이번 임용시험에 아쉽게 탈락한 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아쉬운 결과에 절대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좋은 기운이 올해 꼭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는 티오가 1명이 나도 내가 된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시어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다시 만날 때는 교단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MEMO

너의 열정을
응원합게

PART 2

권지수 교육학 연간 강의계획

2

권지수 교육학 연간 강의 계획

100% 적중 신화의 탁월한 만점전략!!!

1. 구조화된 강의

- (1) 교육학 전체 프레임 한 눈에 익힘: Thinking Map을 통해 교육학의 구조를 한 눈에 조망하고 교육학의 체계를 확실히 다짐
- (2) 교육학 전체 프레임 정교화 함: 교육학 전체 구조와 틀을 더욱 정교화하며, 교육학적 안목을 완벽하게 형성

2. 핵심개념 및 암기법 강의

- (1) 핵심키워드 잡아 줌: 핵심키워드를 추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주요 개념과 이론을 확실하게 파지하도록 함
- (2) 주요 암기법 제시: 암기법을 제시하여 논술 답안에 쓸 분량의 핵심만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함

3. 책 읽지 않는, 이해 중심의 강의

- (1) 풍부한 배경지식 제시: 책을 읽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책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풍부한 배경지식을 제시함
- (2) 구체적인 사례 제시: 추상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교육학적 사례를 접목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함

4. 탁월한 논술 능력 배양

- (1) 논술의 논리를 파악: 논술의 논리틀과 모범답안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여 논술 부담이 전혀 없다고 평가받는 강의
- (2) 철저한 개별 첨삭: 직강과 인강 구별 없이 동일하게 개별첨삭 지도를 하고, 글의 논리와 표현, 내용의 오류를 바로 잡아드림

5. 탁월한 100% 적중률의 강의

- (1) 학계 동향 반영: 최근 학계의 동향을 살피고 출제 가능한 논점을 엄선하여 문제화함으로써 매년 100% 적중의 경이적인 만점 강의를 추구함
- (2) 주요 쟁점 목록 제시: 매년 100% 적중되는 A급 출제 논점을 11월 초에 추려서 쟁점목록으로 제시해 드림

권지수 교육학논술 2020학년도 연간 강의안내

Course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1~2월 기본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학 전체 프레임 한 눈에 익히기: 교육학 전체 구조와 틀을 한 눈에 조망하며 교육학의 체계를 확실하게 다지는 강좌이다. 주요 핵심 개념 확실하게 잡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핵심 개념과 이론을 확실하게 파지하도록 해 준다(암기법 제시). 철저한 개인 관리형 강좌: 개별첨삭(단문형논술)을 통해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팀학습 및 암기지도도 병행한다. 	『권지수 교육학』 논술 스킬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3~4월 심화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학 전체 프레임 정교화하기: 교육학 전체 구조와 틀을 더욱 정교화하며, 교육학적 안목을 완벽하게 형성하도록 한다. 교육학 이론의 심화 및 종합: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교육학 이론을 좀 더 심화하여 교육학을 완성하는 강좌이다(암기법 제시). 철저한 개인 관리형 강좌: 개별첨삭(단문형논술)을 통해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팀학습 및 암기지도도 병행한다. 	『권지수 교육학』 논술 스킬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5~6월 종합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출 객관식(변형) 및 논술형(행시 포함) 종합 적용: 이제까지 학습한 핵심개념을 기출문제와 변형문제에 적용하는 강좌이다. 핵심 개념 적용 및 모범답안(100제) 파헤치기: 핵심개념을 모의문제에 적용하고 논술형 모범답안 100제를 익히는 강좌이다. 철저한 개인 관리형 강좌: 개별첨삭(중단문논술)을 통해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기출문제 쟁점』 『핵심쑥쑥 123』 논술 스킬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7~8월 영역별 모의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역별 종합 모의고사 풀이: 예상 쟁점을 영역별 모의고사에 적용해 보면서 실력을 점검하고 실전감각을 익히는 강좌이다. 출제 1순위 쟁점의 완벽한 정리 및 완성: 출제 1순위의 핵심 쟁점을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완성한다(암기법 제시). 철저한 개인 관리형 강좌: 개별첨삭(완결문논술)을 통해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핵심쑥쑥 123』 『키워드 쑥쑥』 논술 스킬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9~11월 종합 모의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실전 모의고사 적용: 예상 쟁점을 종합한 종합 실전 모의고사에 적용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전감각을 완성한다. 출제 1순위 예상 쟁점 점검 및 확인: 예상 쟁점을 재정리하며, 꼭 알고 가야 할 출제 1순위 쟁점을 짚어준다. 철저한 개인 관리형 강좌: 개별첨삭(완결문논술)을 통해 논술능력을 함양하며, 직강의 경우 팀학습 및 학습상담도 병행한다. 	『핵심쑥쑥 123』 『키워드 쑥쑥』 논술 스킬 ppt, 프린트 <무한반복 시스템>
12월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직적성 심층면접 만점전략: 심층면접 대비 만점전략과 지름길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는 강좌이다.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 기출문제를 점검하고 예상문제를 보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교직 심층면접』 프린트

MEMO

너의 열정을
응원함께

PART 3

중등임용 시험일정 및 출제범위

3

중등임용 시험일정 및 출제범위

1

제1차 시험

2020학년도 임용시험 기준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시간	비고
제1차 시험	교육학		응시자 전체	1교시 09:00~10:00 (60분)	전국 공통
	전공	전공 A		2교시 10:40~12:10 (90분)	
		전공 B		3교시 12:50~14:20 (90분)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3급 이상)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 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8점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 8. 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11호에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과목, 비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전공	전공 A	기입형	4문항	8점	4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2017. 8. 30.)의 부칙 제3조(경과조치) 제11호에 근거 [교육부 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육과정까지(※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참고)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8문항	32점		
	전공 B	기입형	2문항	4점	40점	
			서술형	9문항		
소계			23문항	80점	-	
계(배점)			24문항	100점	-	

2

제2차 시험

2019학년도 임용시험 기준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시간	비고
제2차 시험 (경기 별지 참조)	실기·실험 평가	제1차 합격자 중 실시과목 응시자	09:00~	[실험평가] : 지역별로 포함여부 다름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제1차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09:00~10:00 (60분)	[제외]: 경기, 대구, 인천, 세종, 광주, 강원, 충북, 전남, 전북
	수업 실연		12:00~ [평가시간: 20분]	대구(25분), 강원(15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제1차 합격자 전체	12:00~ [평가시간: 10분]	[15분]: 서울, 강원, 세종 [20분]: 인천, 대구(인문 정신소양평가)

※ 교과 구분

- 1)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 2) 비교수 교과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광주: 조리를 비교수교과로 분류)

※ 심층면접 출제기관

- 1) 평가원 출제: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충북, 대전, 광주, 전남, 제주 (10개 지역)
- 2) 자체 출제: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대구(평가원+자체출제), 전북(평가원+자체출제) (7개 지역)

3

지역별 제2차 시험 안내

※ 2019학년도 임용시험 기준

※ 지역별로 출제범위와 배점 분배가 다르니 확인 요

1. 서울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실험 교과	비 교과	
실기·실험 평가	○ 음악, 미술, 체육 ○ 과학교과 ○ 전문계교과(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디자인공예)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30	-	해당 교과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6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과 제외
수업실연	○ 수업실연 [구상 20분, 실연 20분]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과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교과: 구상 10분, 면접 10분/ 비교과: 구상 15분, 면접 15분] ○ 학생과의 소통·지도능력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0	자체 출제
계(배점)		100	100	100	

2. 경기

전형별	시험과목		대상	시간	비고
제2차 시험	실기 평가		음악, 미술, 체육 제1차 합격자	09:00~	
	수업능력 평가	수업실연	제1차 합격자 (비교수 교과 제외)	09:00~ - 수업실연(15분) - 수업나눔(10분)	1인당 허용 시간
		수업나눔			
교직적성 심층면접	집단토의	제1차 합격자 전체	09:00~ - 집단토의(42분) - 개별면접(10분)	집단토의: 6인 기준 개별면접: 1인당 10분	
	개별면접				

시험 과 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교과	비 교과	
실기 평가		○ 음악, 미술, 체육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40	-	해당 교과
수업능력 평가	수업실연	○ 교원으로서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 력 [구상 25분, 실연 15분] ※ 외국어 과목: 수업실연은 해당 외국어로 전 부 실시	30	10	-	비교과 제외
	수업나눔	○ 수업에 대한 성찰적 질의 응답 [즉답형 10분] ※ 외국어 과목: 수업나눔은 한국어로 실시	30	10	-	
교직적성 심층면접	집단토의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40분, 토의(42분/6인기준)] ※ 외국어 과목: 집단토의는 한국어로 실시	20	20	50	자체 출제
	개별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구상 10분, 면접 10분] ※ 외국어 과목: 개별면접은 일정부분 해당 외 국어로 실시	20	20	50	
계(배점)			100	100	100	

PART 4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4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1 교육학 논술 출제경향 분석

※ 교육학 논술(20점) = 내용 영역(15점), 체계 영역(5점)

연도	전체 주제	출제 논점 (소주제)	출제 영역	논술 유형
2013학년도 (중등 특수) [2013. 5. 25.]	IQ의 해석 ↓ 학습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Q의 해석 [3점] 기대×가치이론 (학습동기 상실 원인/해결방안) [6점] 욕구위계이론 (학습동기 상실 원인/해결방안)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p>[대화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형 관점 제시형 실질적 제시문
2014학년도 [2013. 12. 7.]	학습 동기 유발 ↓ (수업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적 교육과정 (진단: 수업 소극적 참여) [3점] 문화실조 (진단: 수업 소극적 참여) [3점] 협동학습 실행 (학습동기 유발 방안) [3점] 형성평가 활용 (학습동기 유발 방안) [3점] 교사지도성 행동 (학습동기 유발 방안)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교육행정학 	<p>[대화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형 관점 제시형 실질적 제시문 형식적 제시문
2014학년도 (상반기 추시) [2014. 6. 28.]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 및 교사의 수업 효과성 증진 ↓ (학교생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접촉이론/낙인이론 (원인: 학교 부적응) [3점] 행동주의 상담 기법 (학교생활 적응 향상) [3점] 인간중심 상담 기법 (학교생활 적응 향상) [3점] 발견학습 (학문중심교육과정에 근거한 전략) [3점] 장학 활동 (교사 전문성 개발)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사회학 생활지도와 상담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방법론 교육행정학 	<p>[성찰 일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형 관점 제시형 관점 추론형 실질적 제시문 형식적 제시문
2015학년도 [2014. 12. 6.]	교육개념에 충실한 자유교육의 이상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 (내재적 목적) [4점]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 (특징) [4점] Keller ARCS (학습동기 향상-과제제시 방안) [4점] Senge 학습조직 (학습조직 구축 원리)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행정학 	<p>[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증형/설명형 관점 제시형 관점 추론형 실질적 제시문 형식적 제시문
2015학년도 (상반기 추시) [2015. 6. 27.]	교사의 과제 (학교 및 수업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의 선발배치 기능/한계 (기능론 관점) [4점] 관료제 및 이완결합체제 (특징) [4점] ADDIE 모형 (분석 및 설계의 주요 활동) [4점] 준거지향평가 (개념 및 장점)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p>[학교장 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명형 관점 제시형 관점 추론형 형식적 제시문

<p>2016학년도 [2015. 12. 5.]</p>	<p>교사의 역량 (교과 생활지도·조직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점 및 문제점) [4점] · 형성평가 (기능 및 시행 전략) [4점] · 에릭슨 (심리적 유예기)/반두라(관찰학습)(개념)[3점] · 비공식 조직 (순기능 및 역기능) [4점] 	<p>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학 교육행정학</p>	<p>[자기개발계획서]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형식적 제시문</p>
<p>2017학년도 [2016. 12. 3.]</p>	<p>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획 (개념과 효용성) [4점] · 내용조직의 원리 (통합성+ 2가지) [4점] · 조나센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 (학습지원 도구·자원과 교수활동) [4점] · 타당도의 유형과 개념 (내용 타당도) [3점] 	<p>교육행정학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평가</p>	<p>[신문 기사] · 논증형/설명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p>
<p>2018학년도 [2017. 11. 25.]</p>	<p>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커 모형 (명칭과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 이유) [4점] · 문제중심학습 (학습자 역할, 문제 특성과 학습효과) [4점] · 평가유형 (준거지향·개인차 해석, 능력지향·성장지향) [4점] · 동료강학 (명칭과 개념, 활성화 방안) [3점] 	<p>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평가 교육행정</p>	<p>[대화문]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p>
<p>2019학년도 [2018. 11. 24.]</p>	<p>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지능이론 (명칭과 개념, 개발과제와 그 이유) [4점] · 경험선정의 원리(기회·만족 원리)/잠재적 교육과정(개념, 결과 예시) [4점] · 척도법(리커트 척도)/문항내적 합치도(신뢰도 추정방법의 명칭과 개념) [4점] · 변혁적 지도성 (명칭, 신장 방안) [3점] 	<p>교육심리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p>	<p>[성찰 일지] · 설명형 · 관점 추론형 · 실질적 제시문 · 형식적 제시문</p>

2

교육학 내용 영역별 출제경향 분석

영역 연도	교육 과정	교육 심리	교육 방법	교육 평가	생활 지도	교육 행정	교육 사회	교육사 철학
2013 학년도 (중등 특수)		IQ해석, 기대치 이론 욕구위계 이론						
2014 학년도	잠재적 cur.		협동학습	형성평가		상황적지 도성	문화실조	
2014 학년도 (상반기)			발견학습		상답기법 (행동주의, 인간중심)	강화활동	차별접촉 이론 낙인이론	
2015 학년도	백워드 설계		ARCS			학습조직		교육목적 (자유 교육)
2015 학년도 (상반기)			ADDIE	준거참조 평가		관료제 이완결합 체제	기능론 (선발 배치 기능/ 한계)	
2016 학년도	경험중심 cur.	에릭슨 반두라		형성평가		비공식 조직		
2017 학년도	내용조직 원리		조나센	내용 타당도		교육기획		
2018 학년도	워커 모형		PBL	준거참조 평가, 자기참조 평가		동료강화		
2019 학년도	경험산정 원리, 잠재적 cur.	다중지능 이론		리커트 척도, 신뢰도 추경방법		변혁적 지도성		

PART 5

교육학 논술 탁월한 만점 전략

5

교육학 논술 탁월한 만점 전략

1

탁월한 만점 전략1 : 공부방법을 알아야 한다.

주의집중 ⇨ 이해 ⇨ 정리 ⇨ 암기 ⇨ 인출

주의 집중	· 정보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함 ·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함	주의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해	· 주의집중한 정보 자극에 대해 개인이 의미와 해석을 부여함	이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철자에 불과할 뿐이다.
정리	· 조직화: 복잡한 별개의 정보들을 간결하게 하고, 구조적·기능적으로 관련짓고 묶음(분류, 구조화, 군집화 등) · 정교화: 새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여 의미를 부여·심화함(구체화, 요약 등)	핵심을 구조화하고 압축·요약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단편적 지식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다.
암기	· 핵심을 장기기억 속에 저장함(정교화 암송) → 암기법, 초과반복학습 등 · 암기법: 두문자법, 운율법, 스토리법, 연상법, 장소법, 종합법 등	정리한 내용을 꼭 암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인출	·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의식수준에 떠올림(정보탐색 및 재생과정)	수시로 떠올려보고 연습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바로 인출되지 않을 것이다.

2

탁월한 만점 전략2 : 암기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두문자법	· 첫 글자만 따서 암기 (두 번째 글자도 이용 가능)	<p>예) 사색당과 간 다툼으로 벌어진 사화(士禍) 순서 : 무갑기을(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p> <p>예) 국보 1~5호 순서: 승례문-원각사지십층석탑-진홍왕순수비-고달사지부도-법주사쌍사자석 등 ㉠ 승원진고법</p>
운율법	· 운율(리듬)을 이용하여 암기	<p>예) 조선시대 왕명: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 (4·3조 운율)</p> <p>예) 화학원소 주기율표: '수~헬리 베푼탄~질~산 플 네나마~ ...' ('산~토끼 토끼야' 리듬)</p>

<p>숫자 변환법</p>	<p>· 무의미한 숫자를 의미 있는 단어로 변환해서 암기(→ 1(ㄱ), 2(ㄴ), 3(ㄷ), 4(ㄹ), 5(ㅁ), 6(ㅂ), 7(ㅅ), 8(ㅇ), 9(ㅈ), 0(ㅊ) 등)</p>	<p>예 임진왜란(1592): 국민재난(1592) 예 대한제국선포(1897) : 겨우존손(1897) 예 임시정부(1919): 궁지궁지(1919)</p>
<p>스토리법</p>	<p>· 이야기로 구성하여 암기</p>	<p>예 우리 근대문학사 중 동인지의 발간 순서: 창조-폐허-백조-시문학 ⇨ '친지를 창조하고 곧 폐허가 되었으나 백조가 날아올라서 시문학이 탄생했다' 예 고인돌 양식- 북방식 고인돌(탁자식), 남방식 고인돌(바둑판식): '북한은 대화의 탁자에 나와야 한다. 남한은 지금 바둑돌이 한창이다'</p>
<p>연상법</p>	<p>① 기본연상법: 여러 개의 단어들을 시각적 형태로 변형(심상 형성)하거나 의미 있게 연결하여 암기 ② 중심연상법: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확장되어 가는 내용일 때 사용(생각그물만들기(mind mapping)과 같은 맥락) ③ 장소법: 친근한 장소나 상상한 장소에 순서를 정하고 암기할 내용과 연결하여 암기</p>	<p>예 '사자와 토끼' 암기: 사자가 토끼의 목을 물어뜯는 장면 상상/ 수성의 특징으로 '대기가 없어 밤낮의 온도차가 큼/ 표면이 달과 비슷함' 암기: 수성은 수성사인펜, 온도차는 온도계, 표면은 달을 연상 ⇨ 수성사인펜으로 달 표면을 밤없이 찍었는데 기온이 완전 다른 온도계가 나오는 것을 상상함 예 지증왕의 업적 암기: '국호제정, 마립간 대신 왕 칭호 사용, 우산국 정벌, 우경시작으로 생산력 확대' → 신라는 신라면, 지증왕은 지령이, 국호제정은 국물, 마립간 대신 왕 칭호 사용은 왕(王), 우산국 정벌은 우산, 우경시작으로 생산력 확대는 소고기로 연상 ⇨ '신라면이 있다. 그 주변에 지령이와 밭이 있다. 지령이는 국물에 몸이 젖어 있고, 머리에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다. 그 지령이가 우산을 쓰고 있다. 지령이는 소고기를 먹고 있는 중이다.'로 연상 예 '수박-콩-참외-미나리-옥수수-참깨-호두-갈치-고등어-멸치' 암기: 우리 신체 '1.머리-2.눈-3.입-4.목-5.가슴-6.배꼽-7.영덩이-8.무릎-9.장딴지-10.발가락'의 10개 순서를 미리 입력하고 암기할 내용과 연결함 ⇨ 머리에는 수박을 이고 / 눈에는 콩알을 눌러 박아 놓고 / 입으로는 참외를 입이 찢어도 록 벌려서 깨물고 / 목에는 미나리를 칭칭 감고 / 가슴에는 옥수수를 창처럼 꽂고 / 배꼽에는 참깨를 소복하게 담아 놓고 / 영덩이 사이에는 호두를 끼우고 / 무릎에는 갈치를 한 바퀴 감아서 매어두고 / 장딴지에는 고등어가 꼭 깨물고 있으며 / 발가락 사이사이에 멸치가 끼워져 팔딱거리고 있다</p>
<p>종합법</p>	<p>· '두문자+축약+결합+연상' 등을 종합한 암기</p>	<p>예 식물의 10대 영양소: C-H-O-N-S-P-K-Ca-Mg-Fe ⇨ 촌스(C-H-O-N-S)런 피케이(P-K, 골키퍼)가 카페마을(Ca-Fe-Mg)에 나타났다</p>

1. 기본 개념과 이를 활용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 시험은 주관식으로 채점되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출제의 원칙상 복잡하며 잡다한 내용, 보편화되지 않은 최신 이론 등은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교육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보편적인 기본 개념(지식)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사고력(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은 의외로 매우 방대하며 잡다하다. 수험생들은 이를 모두 암기하려 들거나 잡다한 지식을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교육학의 핵심 개념과 이론을 잘 살펴야 한다. 다음, 그 의미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분과학문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한다.

교육학은 여러 개의 분과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가능하면 많은 분과학문에서 골고루 출제하고자 한다. 교육학 논술 문제는 큰 논제 하나로 출제되지만 그 논제에 적어도 4개 이상의 분과학문을 각각의 논점으로 하여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이나 어느 이론에 치우침이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다소 한정적이거나 세부적이라고 하여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넘겨서는 절대 안 됨에 유의해야 한다.

3. 논제 파악이 분명한 문제를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에서 논제나 논점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답안 채점에서 복수답안이 많아져서 채점에 어려움이 매우 많게 되며 변별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일반 논술과는 달리 논제가 매우 분명하며 논점의 방향이 일의적이다. 쉽게 말해 무엇을 묻는지가 딱 떨어지는 분명한 문제가 출제된다.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논술 답안 역시 대체로 일정하게 정해진 답안의 기준에 수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개념과 이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 하나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논술 문제를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의 논점은 대체로 4개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 논점들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출제한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편의 완결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의 내용 요건에 논술의 형식 요건(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교육학 논술 문제는 수험생들이 완결된 자신의 글에서 하

나의 주제가 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출제한다. 필요시에는 문제에서 특정 주제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도 고려한다. 논술문은 출제 형식에서 특정 주제가 제시되든 제시되지 않든 반드시 한 편의 완결된 글에서 하나의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써야 함이 원칙이다.

5. 배점 기준을 제시하여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도록 출제한다.

교육학 논술 평가에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제고하고자 평가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상호 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려고 한다. 상호 주관성이란 평가의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평가 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공유된 관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논술 문제에 미리 배점 기준표를 제시하여 상호 주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배점 기준표는 평가 지침이자 채점의 준거 척도로서 기능하며 이를 평가의 실질적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주체와 대상, 평가 주체들 간에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

탁월한 만점 전략4 : 교육학 논술 공부의 5대 원칙

1. 구상하기 전략(이해하기): 교육학 개념의 이해 + 논술 도식의 이해

(1)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모든 공부가 그러하듯이 교육학 공부도 이해가 가장 우선이다.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암기는 무의미철자의 암기와 같다. 교육학 공부의 출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교육학 지식은 사실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개념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학 내용을 이해하려면 개념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사전을 찾든지 질문을 하든지 강의를 듣든지 해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의미가 뚜렷해지고 구체화될수록 글은 정확히 이해된다. 다음, 내용이 이해되면 핵심을 간파한다. 책의 내용이 이해되면 핵심 개념을 찾고 핵심 개념이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추려본다. 책의 단어가 어렵거나 문장이 산만할 때에는 쉬운 말로 간추리면 된다.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요약하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1원칙(1)이다.

(2) 논술의 인지 도식을 정확히 이해한다.

논술은 막연한 글쓰기가 아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논술이다. 논술 문제에는 특정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그 관점에 대해 논증법과 설명법을 동원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논술문은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한 편의 완결된 작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논술문을 잘 쓰려면 논

술의 형식과 전개 방법, 논증법과 설명법, 논제 파악 방법, 문장 표현 방법 등 논술의 이론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내용의 단순한 나열도 아니요, 자기 생각의 임의적 열거도 아니다. 교육학 내용을 논술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논술의 인지 도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1원칙(2)이다.

2. 스케치 전략(조직화): 교육학 개념의 조직 + 논술 도식의 조직

(1)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지식의 구조 속에서 논리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한다.

교육학 내용은 매우 방대하고 잡다하다. 분과학문도 많을뿐더러 이론과 개념도 다기하며 복잡하다. 교육학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금방 길을 잃고 그 내용 속에 매몰되고 만다. 따라서 교육학을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논리 구조적으로 엮어 재조직하는 것이다. 핵심을 논리 구조로 엮을 때에는 선행조직자가 필요한데, 단원을 조직할 때에는 목차, 문단이나 본문의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핵심 개념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 핵심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엮으면 교육학 전체가 구조화된다. 교과서 순서나 체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사고 체계나 글의 논리 구조에 따라 엮으면 된다. 파격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교육학은 어떤 분과학문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분과학문은 어떤 논리와 구조로 세워져 있고 어떤 개념과 이론 체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또, 그러한 개념과 이론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으며 그 고유한 핵심 아이디어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할 수 있게 된다.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논리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할 때 교육학 전체의 인지구조가 형성되며 교육학을 보는 안목도 형성된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2원칙(1)이다.

(2) 논술의 인지 도식을 습득하여 교육학 내용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교육학 논술은 어떤 주제에 대한 교육학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술의 형식에 맞춰 쓰는 것이다. 교육학의 내용 요건을 논술의 형식 요건에 맞춰 전개하기 위해서는 논술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학의 내용이 자료라면 논술의 형식은 설계 도면과 같다. 설계 도면에 맞춰 자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집을 짓듯이 교육학 내용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이미 논술의 인지 도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논술의 인지 도식이 형성된 사람은 교육학을 공부할 때에도 다르게 접근한다. 이런 사람은 교육학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논술의 인식 도식에 맞춰 교육학 내용을 수용한다. 그래서 교육학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논술의 인지 도식에 맞춰 논리적으로 학습한다. 이렇게 논술의 인지 도식을 습득하고 논증 능력과 설명 능력을 함양하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2원칙(2)이다.

3. 채색 전략(정교화): 교육학의 개념과 이론을 2~3 문장으로 간결·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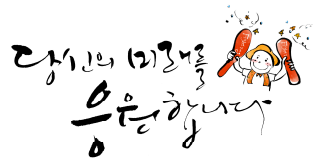
교육학은 학자마다, 교과서마다 다양한 형태로 설명되는데다가 설명하는 방식도 매우 달라 복잡하다. 그런데 수험서는 이런 복잡한 책들을 이것저것 짜깁기하여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의 논리나 일관된 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긴 문장으로 장황하게 나열해 놓은 글, 분절된 지식의 형태로 산만하게 짜깁기한 글, 핵심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장황하게 덧붙여 놓은 글 등 매우 난잡하고 복잡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런 분절된 지식을 단편적으로 모두 암기하려 든다는 점이다. 암기량만 많아 수험 기간 내내 고생만 하다가 결국 실제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표현해 내지도 못하고 고통만 겪게 된다. 날개의 흩어진 파편들을 장황하게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로는 절대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없다.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일수록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학은 기본 개념과 핵심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논리 구조적으로 엮어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지식의 구조 속에서 날개의 개념과 이론을 2~3 문장으로 간결·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본 개념과 이론이 지닌 의의나 특징, 장단점, 영향, 시사점, 교육적 적용 등은 3~5개 정도로 논리적으로 항목화하여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3원칙이다.

4. 완성 전략(암기): 정리된 교육학 핵심 내용을 수시로 암기하며 인출한다.

아무리 잘 정리된 내용일지라도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 내용을 머릿속에서 인출하여 써야 하므로 머릿속에 저장된 내용이 없으면 한 글자도 쓰지 못한다. 따라서 잘 정리된 교육학의 핵심 내용을 장기기억 속에 저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학 개념을 조직화·구조화하여 이해하면 장기기억에 잘 저장된다. 개념을 논리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또, 장기기억 속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교화 암송이나 암기법, 초과반복학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암기법에는 두문자법, 운율법, 스토리법, 연상법, 장소법, 종합법 등이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다. 완전학습 수준 이상으로 학습을 반복하는 것도 자동화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암기된 내용은 수시로 꺼내보아야 한다. 결국 시험은 input한 것을 output하는 과정이므로 암기와 인출은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인출은 수시로 활용하면 좋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갈 때, 밥 먹을 때, 잠깐 쉴 때 등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4원칙이다.

5. 작품 출품 전략(인출): 논술 문제를 통해 핵심 개념을 인출·적용하고 이를 활용한 사고력을 배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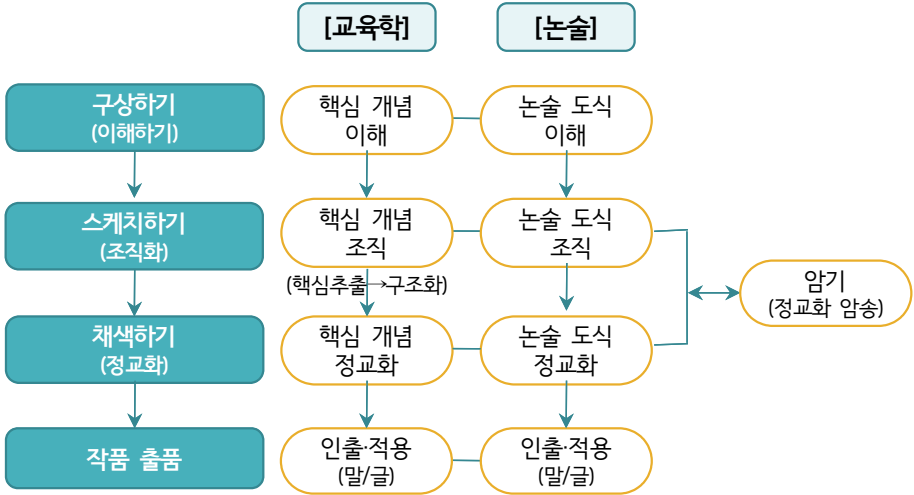
이제 교육학 논술의 실전 경험을 통해 학습을 완성하며 자신의 실력을 성장시킨다. 집을 많이 지어본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에 맞게 집을 효과적으로 잘 지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학 논술 문제를 많이 다루어보고 처리해 본 사람일수록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춰 안정적이면서 자유롭게 논술할 수 있게 된다. 실전 문제를 통해 그동안 학습한 교육학 개념과 이론을 인출·적용해 보고 사고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보완하여 학습을 완결하도록 한다. 이것이 교육학 논술 공부의 제5원칙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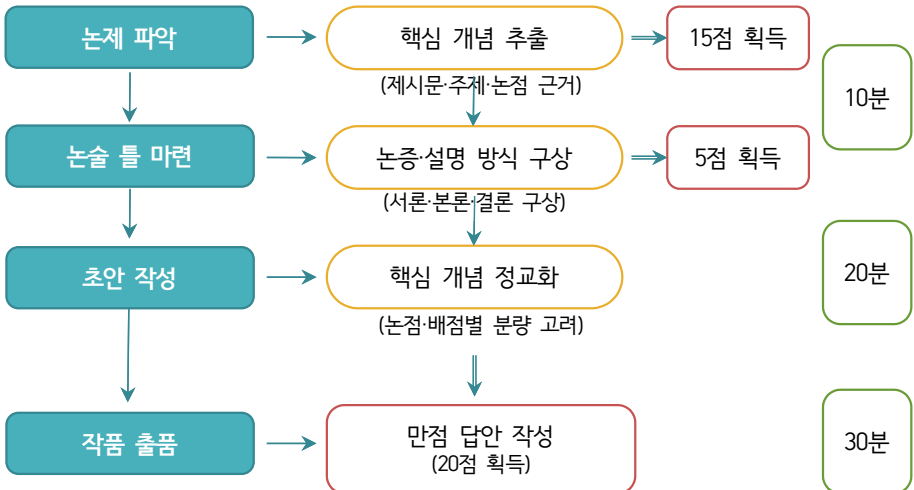
탁월한 만점 전략5 : 교육학 논술 스키마 획득

(1) 교육학 논술 만점 공부 전략



- 권지수 모형1(작품완성 전략) -

(2) 실전에서 바로 써 먹는 만점 논술 전략



- 권지수 모형2(일이관지 전략) -

MEMO

너의 열정을
응원함께

PART 6

교육학 논술 모범 답안



교육학 논술 모범 답안

Education Essay
교육학 논술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2019학년도

교육학 논술

합격지수100

기출분석 및 모범답안

권 지 수 著

 **저스티스**
JUSTICE BOOKS

ESSAY ON EDUCATION

권지수 교육학 적중 자료

1 '1번 논점(다중지능이론)' 매우 강조한 그대로 적중!!!

(1) 기출 문제 (1번 논점: 다중지능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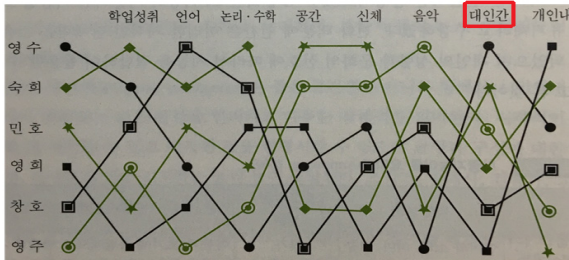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1과 관련하여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4점]
 - #2와 관련하여 타이러(R. Tyler)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 잭슨(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 제시 [4점]
 - #3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1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1가지의 명칭과 개념 [4점]
 - #4에 언급된 바스(B. Bass)의 지도성의 명칭,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및 주제와의 연계성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2) 적중 근거 (1번 논점: 다중지능이론)

1) 9-11월 모의고사반 (7회 문제)

① 모고 제시문



<다중지능 프로파일의 사례>

윤 교사 : 이걸 우리 반 학생들의 다중지능 프로파일입니다. 다중지능검사서 체크된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영역의 지능이 높은 것이며, 체크된 문항의 수가 적으면 그 영역의 지능이 그만큼 덜 개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방향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② 모고 배점기준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김 교사가 제기한 교육과정의 명칭과 그 의미 2가지, 권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 1가지 [4점]
 - 윤 교사가 제시한 지능 프로파일이 시사하는 점 1가지, 그 교육적 적용 방안 3가지 [4점] → **다중지능이론**
 - 장 교사가 실시한 홀랜드의 진로탐색검사 결과, 철수와 영희의 직업적 성격유형과 그 특징 [4점]
 - 이 교사에 따라 때 A 중학교의 학교조직풍토와 그 외 풍토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2

'2번 논점(학습경험 선정원리/잠재적 교육과정)' 매우 강조한 그대로 적용!!!

(1) 기술 문제 (2번 논점: 경험 선정원리/잠재적 교육과정)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1과 관련하여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4점]
 - #2와 관련하여 타이러(R. Tyler)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 잭슨(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 제시 [4점]
 - #3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1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1가지의 명칭과 개념 [4점]
 - #4에 언급된 바스(B. Bass)의 지도성의 명칭,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및 주제와의 연계성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2) 적용 근거 (2번 논점: 경험 선정원리/잠재적 교육과정)

1) 7-8월 모의고사반 (1회 문제: 경험 선정 원리)

① 모고 제시문

김 교사 : 이 선생님은 교육목표의 설정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군요. 또 선생님의 질문 유형이 주로 '어떻게'의 형태로 제기되는 점에서 보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원리나 방법에 관심이 많군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의 합리적인 처방을 제시해 보면, 학습경험을 선정할 때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느냐의 문제보다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무엇을 경험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선생님이 설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실제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학습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내용은 학습목표와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헛수고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② 모고 배점기준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이 교사가 주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장점 및 한계점 각각 2가지 제시 [4점]
 - 김 교사가 제안한 내용 선정의 원리 1가지와 그 외의 원리 2가지 제시 [4점] ⇨ 기회/만족의 원리
 - 강 교사의 입장에서 제기 가능한 행동목표에 대한 비판점 2가지와 교육적 상상력의 개념 제시 [4점]
 - 박 교사의 관점에서 기술공학적 논리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문제점 2가지 제시 [3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2) 9-11월 모의고사반 (21회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

① 모고 제시문

김 교사 : 학교는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지·태도·행동 변화는 학교 안의 눈에 띄지 않는 교육실천과,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 조직, 사회심리적 상황 등의 교육환경에 의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학생들은 교사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구별되지 않았던 공부와 놀이가 교사의 개입과 주도로 구별되고, 자기주도적 학습도 교사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되면 타율적 인식을 갖게 됩니다. 또, 교육과정 속에 숨겨진 가치를 암암리에 습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성을 가정주부로, 남성을 지도자로 묘사하는 내용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은연중에 성 편향적 시각을 갖게 됩니다.

② 모고 배점기준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박 교사가 언급한 지능검사의 명칭(①을 표기할 것)과 그 예 1가지, 지능이론을 구성하는 지능의 3측면 [4점]
 - 김 교사가 제기한 교육과정의 유형이 지닌 의미 2가지 [3점] ⇨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
 - 장 교사의 발언에 나타난 경제적 재생산이론의 주요 개념 1가지, 문화적 재생산이론에 근거할 때 문화적 재생산의 경로 2가지 [4점]
 - 이 교사의 발언에 나타난 인간 해방을 위한 진정한 교육(②)의 명칭과 개념 및 교육방법, 학습방법 중 2가지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3 '3번 논점(척도법/신뢰도 추정방법)' 매우 강조한 그대로 적용!!!

(1) 기출 문제 (3번 논점: 척도법/신뢰도 추정방법)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1과 관련하여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4점]
 - #2와 관련하여 타이러(R. Tyler)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와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 잭슨(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 제시 [4점]
 - #3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1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1가지의 명칭과 개념 [4점]
 - #4에 언급된 바스(B. Bass)의 지도성의 명칭,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및 주제와의 연계성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2) 적용 근거 (3번 논점: 척도법/신뢰도 추정방법)

1) 9-11월 모의고사반 (28회 문제)

① 모고 제시문

박 교사: 평가도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점수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평가도구를 개발할 때에는 학생의 실력을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지난 번 중간고사에서 30문항을 출제했는데, 검사 신뢰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검사문항을 가능하면 동질적으로 구성하고, 시험의 문항 수를 많이 늘려서 출제하되,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항으로 출제할 생각입니다. 한편, 주관식 채점의 경우 객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객관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② 모고 배점기준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6점]
 -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차이를 교육동기 및 목적의 차원에서 설명, 공교육에 주는 시사점 1가지 [4점]
 - 이 교사가 제기한 문제점을 학교교육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3가지 [4점]
 - 마샤(Marcia)의 정체감 지위이론의 관점에서 철수의 정체감 지위 상태와 정체성 성취를 돕기 위한 전략 2가지 [3점]
 - 박 교사의 신뢰도 향상 방법의 문제점 1가지, 객관도의 두 가지 유형과 객관도 향상 방법 1가지 [4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4점] **⇒ 신뢰도 문제**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의 적절성 [1점]

적중!

4

'4번 논점(변혁적 지도성)' 교육행정 1순위로 강조한 그대로 적용!!!

(1) 기술 문제 (4번 논점: 변혁적 지도성)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1과 관련하여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4점]
- #2와 관련하여 타이러(R. Tyler)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 잭슨(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 제시 [4점]
- #3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1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1가지의 명칭과 개념 [4점]
- #4에 언급된 바스(B. Bass)의 지도성의 명칭,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및 주제와의 연계성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2) 적용 근거 (4번 논점: 변혁적 지도성)

1) 9-11월 모의고사반 (4회 문제), 7-8월 모의고사반(13회 문제)

① 모고 제시문(1)

D 학교: 학교조직의 변혁을 시도하며 ...

- 이제는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하거나 경영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학교 상황 자체를 변혁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도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교장으로서 학교조직이 다른 실제로 변화되어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내적 특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지도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① 모고 제시문(2)

상황3: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박 교사

초임교사인 박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성과급 배분이나 근무명령 시에는 연공서열에 따르고 있어 불만이 많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교사들도 비슷한 지각을 하고 있어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학교풍토가 형성되고 있다.

활성화

상황4: 상황을 변혁해야 할 신임 권 교장

신임 교장인 권 교장은 현재의 학교 상황으로는 거기에 맞는 지도성을 발휘하기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상황 자체를 변혁하고 개선해야 학교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구성원의 성장욕구를 자극하여 동기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도성을 발휘하고자 한다.

② 모고 배점기준(1)

<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내용 [총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학교에서 시도한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및 장단점 각 1가지, 수업 운영 방법 1가지 제시 [4점] - B 학교에서 지향하는 교수이론의 명칭과 개념, 그 교수 원칙 3가지 제시 [4점] - C 학교에서 제시한 과정 중심의 평가 유형 1가지와 그 외 유형 2가지 제시 [3점] - <u>D 학교의 교장이 시사하는 지도성의 명칭과 개념, 그 지도성의 핵심요소 중 3가지 제시 [4점]</u>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 변혁적 지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② 모고 배점기준(2)

<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내용 [총 1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이론의 관점에서 김 교사의 직무동기 저하 원인과 직무동기 활성화 방안 각 2가지 (4점) - 동기-위생이론 관점에서 이 교사의 직무불만 이유를 밝히고,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직무설계기법 2가지 (4점) - 공정성이론의 관점에서 박 교사가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유형과 직무동기 향상 방안 각 2가지 (4점) - <u>권 교장이 발휘할 지도성 유형을 설명하고, 그 지도성의 핵심요소 3가지 제시 (4점)</u>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4점] ⇒ 변혁적 지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내용과 '교사의 직무동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2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 2019 대비 주요 쟁점목록(체크 표시 특히 유의): 마지막 짝기 그대로 적중!!!

[1] 교육과정

주요 쟁점	최종 점검
잠재적 교육과정((개념, 특징, 교육과정 개발) ✓	
영 교육과정(개념, 발생원인) ✓	

적중!

[2] 교육심리

주요 쟁점	최종 점검
가드너 다중지능이론(개념, 구성, 특징, 교수전략) ✓	
스턴버그 삼원지능이론(개념, 구성, 특징, 교수전략) ✓	

적중!

[3] 교육평가

주요 쟁점	최종 점검
신뢰도(개념, 추정방법, 향상방법) ✓	
객관도((개념, 향상방법) ✓	

적중!

[4] 교육행정

주요 쟁점	최종 점검
지도성론(변혁적, 초우량, 분산적 지도성) ✓	
동기론(매슬로우, 동기-위생,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	

적중!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1] 출제 경향

1. 출제 경향: 작년에 비해 다소 어려운 수준(주요 변별력 요소: 다중지능 및 신뢰도 추정방법의 명칭과 개념), 4개 영역(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힌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고루 안배한 문제 ⇨ **객관식의 지엽적 요소와 논술식의 사고력 오픈형의 혼합 문제**
2. 특이 사항: **모의문제에서 출제 1순위로 강조하며 다루었던 문제들이며,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특별히 체크 표시하여 짚은 논점들이 다 출제되었음**
3. 내년 경향: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2] 기출 분석

1. 논술 주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 분석
 - (1) 1번 논점(다중지능이론): **모고(7-8월 4회: 지능명칭 암기법 소개) 및 모고(9-11월 7회)/ 마지막 짚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다중지능의 명칭과 개념(2점): 대인관계 지능/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지능 ⇨ 타인의 기분, 동기, 의도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능력
 - ② C 학생에게 제공할 개별 과제와 그 이유(2점): C학생이 '개인내적 지능'이 강점 지능이라는 점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도 개인내적 지능과 연관시켜야 함 ⇨ 자기주도적이거나 자기조절이 가능한 학습과제(프로젝트형 과제), 자기성장 지향적 과제, 좌절하지 않고 실패에 대처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 등
 - (2) 2번 논점(학습경험 선정 원리와 잠재적 cur.): **모고(7-8월 1회) 및 모고(9-11월 21회)/ 마지막 짚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학습경험 선정 원리(2점):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 ②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2점):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은연 중에 학습하는 경험, 모둠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경험의 예를 제시

(3) 3번 논점(척도법, 신뢰도 추정방법): 모고(9-11월 28회)/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척도법의 명칭과 진술문 작성 유의점(2점): 리커트(Likert) 척도, 진술문 작성 유의점
- ② 신뢰도 추정방법의 명칭과 개념(2점): 문항내적 합치도(검사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이 일관성이 있는 정도/검사 속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그 합치성·동질성·일치성을 종합하는 신뢰도)

(4) 4번 논점(변혁적 지도성): 모고(7-8월 13회 및 9-11월 4회) 두 번씩 출제하며 1순위로 꼽은 논점/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체크 표시하며 강조

- ① 지도성의 명칭(1점): 변혁적 지도성
- ② 동료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장방안(2점): 동료 간 연구회 활성화, 동학년 협의회 활성화, 멘토링 활성화,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2019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학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1교시	1문항 20점	시험 시간 6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중학교 김 교사가 모둠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김 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하여 논하시오. [20점]

- #1 평소에 A 학생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B 학생은 수리 능력이 우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모둠활동에서 보니 다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상호작용을 잘 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비슷했어. 이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모둠을 이끌도록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C 학생은 모둠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편이야. C 학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개별 과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
- #2 모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습경험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자신의 학습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을까? 어쨌든 모둠활동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겠어.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 #3 모둠을 구성할 때 태도나 성격 같은 정적적 요소도 반영해야겠어. 진술문을 몇 개 만들어 설문으로 간단히 평가하고 신뢰도는 직접 점검해 보자. 학생들이 각 진술문에 대한 반응을 등급으로 선택하면 그 등급 점수를 합산할 수 있게 해 주는 척도법을 써야지. 설문 문항으로 쓸 진술문을 만들 때 이 척도법의 유의점은 꼭 지키자. 그리고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해서 신뢰도를 추정해야 할 텐데 반분검사신뢰도는 단점이 크니 다른 방법으로 신뢰도를 확인해 보자.
- #4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성이 필요하겠어. 내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자. 학생들의 혁신적·창의적 사고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야.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켜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을 계발시켜야지. 독서가 이 지도성의 개인적 신장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동료교사와 함께 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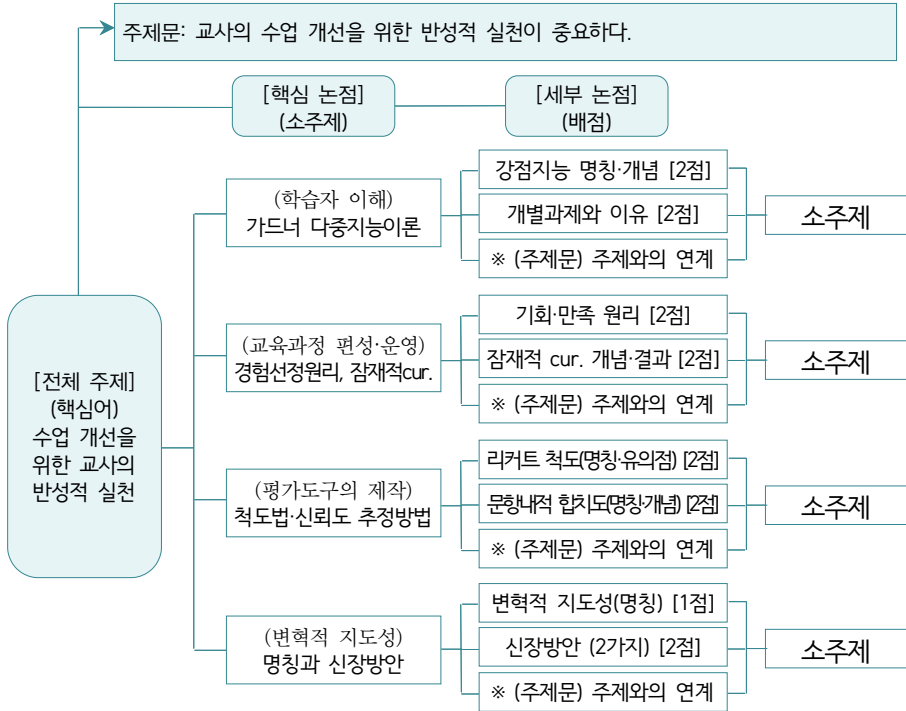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1과 관련하여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으로 파악된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4점]
 - #2와 관련하여 타일러(R. Tyler)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하고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 잭슨(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 제시 [4점]
 - #3에 언급된 척도법의 명칭과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 1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1가지의 명칭과 개념 [4점]
 - #4에 언급된 바스(B. Bass)의 지도성의 명칭, 김 교사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 및 주제와의 연계성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수고하셨습니다.〉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 ('내용 영역')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강점 지능의 명칭과 개념, 김 교사가 C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각 1가지 [4점]
 - ⇒ 대인관계 지능의 명칭과 개념(2점), 개별 과제와 그 이유(2점) [4점]
 - 타일러(R. Tyler)의 학습경험 선정 원리 중 기회의 원리로 첫째 물음을 설명, 만족의 원리로 둘째 물음을 설명, 잭슨(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과 김 교사가 말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 제시 [4점]
 - ⇒ 기회 및 만족의 원리로 설명(2점),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1점)과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의 예(1점) [4점]
 - 척도법의 명칭과 진술문을 작성할 때 유의점 1가지,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 1가지의 명칭과 개념 [4점]
 - ⇒ 리커트 척도의 명칭과 진술문 작성 유의점(2점)과 신뢰도 추정방법(문항내적 합치도) 명칭과 개념(2점) [4점]
 - 바스(B. Bass)의 지도성의 명칭,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3점]
 - ⇒ 변혁적 지도성의 명칭(1점), 신장방안 2가지(2점) [3점]

[답안 구상]

[주제문]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이 중요하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 (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학습자 이해)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① 지능 명칭·개념 [2점]	대인관계 지능	㉠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지능 ㉡ 타인의 기분, 동기, 의도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능력	4점	교육 심리
		② 개별과제와 그 이유 [2점]	자기주도적인 수행이 요구되는 프로젝트형 과제, 자기조절형 과제 등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통제하는 능력인 개인내적 지능이 우세하기 때문		
		* 주제와의 연계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려면 학생의 장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자신의 수업을 고민하는 자기 반성적 실천이 뒤따라야			
	(교육 과정 편상 운영) 경험선정 원리, 잠재적 cur.	① 기회·만족의 원리 [2점]	㉠ 기회의 원리: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만족의 원리: 학습경험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	㉠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모듈활동에 제공된 학습경험에 흥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4점	교육 과정
		② 잠재적 cur. 개념·결과 [2점]	㉠ 개념 ㉡ 결과	㉠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연연 중에 학습하는 경험 ㉡ 부정적 태도나 경험 ⇨ 모듈 활동이 의도한 교육적 효과 보다는 학생 자신이 집단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소외감이나 수치심을 경험		
		* 주제와의 연계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선정하는 신중한 배려			

(평가도구의 제작) 척도법·신뢰도 추정방법	① 리커트 척도(명칭·유의점) [2점]	㉠ 명칭 ㉡ 진술문 작성 유의점	㉢ 리커트 척도 ㉣ 문항을 간단명료하게 진술	4점	교육평가
	② 문항내적 합치도(명칭·개념) [2점]	㉠ 명칭 ㉡ 개념	㉢ 문항내적 합치도 ㉣ 검사 속 문항을 각각 독립된 한 개의 검사 단위로 생각하고 그 합치성·동질성·일치성을 종합하는 신뢰도		
	※ 주제와의 연계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는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그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성찰이 요구			
(변혁적 지도성) 명칭과 신장방안	① 변혁적 지도성 (명칭) [1점]	명칭	변혁적 지도성	3점	교육행정
	② 신장방안 (2가지) [2점]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동학년 협의회 내 실화	㉢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봄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급 조직의 문화도 변혁 ㉣ 각 학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제해결력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사 각자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높여 나가도록		
	※ 주제와의 연계	교사의 수업 개선이 보다 혁신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고 상황 자체를 변혁할 수 있는 변혁적 지도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2019학년도 교육학 논술 모범답안

I. 서론

최근 학생의 행복교육을 증시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 요구된다. 제시문의 성찰 내용을 토대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성찰적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를 때, A, B 학생의 공통적인 강점 지능은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이다. 대인관계 지능은 대인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지능으로, 타인의 기분, 동기, 의도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A, B 학생 모두 다른 학생을 이해하며 모둠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C 학생은 모둠활동에 소극적이다. 이런 C 학생에게 김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개별 과제는 자기주도나 자기조절이 가능한 프로젝트형 과제이다. 이 과제가 적절한 이유는 C 학생은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통제하는 능력인 개인내적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려면 학생의 장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서 자신의 수업을 고민하는 자기 반성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교사의 수업 개선에서 주목할 부분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의 선정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타일러(R. Tyler)가 제시한 기회의 원리는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 교사의 첫째 물음에서 모둠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충분한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만족의 원리는 학습경험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교사의 둘째 물음에서 학생들은 모둠활동에 제공된 학습경험에 흥미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잭슨(Jackson)에 따르면,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은연 중에 학습하는 경험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칭한다. 이에 근거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는 모둠활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경험이다. 모둠활동이 의도한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 자신이 집단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소외감이나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학습경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선정하는 신중한 배려이다.

평가도구를 제작하는 일도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의 중요한 항목이다. 김 교사가 언급한 척도법은 리커트(Likert) 척도이다. 리커트 척도는 모든 진술문에 반응하도록 한 다음 모든 진술문의 평점점수를 합산하여 정의적 특성 점수로 간주하는 종합평정법이다. 리커트 척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진술문을 작성할 때에는 문항을 간단명료하게 진술해야 하며, 중립적 진술

문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문항이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피로감, 긴장을 유발하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평가를 실시할 때 척도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 교사가 사용할 신뢰도 추정 방법은 문항내적 합치도이다. 이것은 검사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반응이 일관성이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문항들에 대한 반응의 일관성은 문항들의 동질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동질성 계수라고 한다. 이처럼 교사가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는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그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성찰이 요구된다.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서는 지도성에 대한 반성적 실천도 필수적이다. 김 교사가 언급한 지도성은 변혁적 지도성이다. 변혁적 지도성은 구성원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여 동기화시킴으로써 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게 한다. 김 교사가 학교 내 동료교사와 함께 이 지도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한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봄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급 조직의 문화도 변혁해 나갈 수 있다. 둘째, 동학년 협의회를 내실화한다. 각 학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제해결력과 지식을 공유하고 교사 각자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높여 나가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수업 개선이 보다 혁신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고 상황 자체를 변혁할 수 있는 변혁적 지도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한다.

III. 결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적 실천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 능력을 파악해야 하며, 수업에서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경험을 배우지 않도록 학습경험의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평가도구 제작 시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특성에 알맞은 도구를 제작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상황을 변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의 변혁적 지도성도 꾸준히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만점 미션 완료!!!



[핵심이 명쾌한 강의] 권지수 교육학 논술

- ① 강의 : 박문각 임용고시학원 / 티치스파
- ② 네이버 블로그 : <http://kwonjisu100.blog.me>
- ③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kwonjisu100>

Education Essay
교육학 논술

권지수의 탁월한 만점전략

2018학년도

교육학 논술

합격지수100

기출분석 및 모범답안

권지수 著

 저스티스
JUSTICE BOOKS

ESSAY ON EDUCATION

권지수 교육학 적중 자료

1 '1번 논점(워커 모형)' 강조한 그대로 적중!!!

(1) 기출 문제 (1번 논점: 워커 모형)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D. 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4점]
 -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 [4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가지,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유형의 개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이 적절할 것 [2점]

(2) 적중 근거 (1번 논점: 워커 모형)

1) 9-11월 모의고사반 (7회 문제)

① 모고 제시문

김 교사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지향함에 따라 학교수준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생의 '행복한 학습'이라는 우리나라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에 반응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을 토대로 독특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신념과 가치체계를 갖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논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주요 쟁점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면서 숙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숙의를 통해 여러 교사들과 협의와 대립, 조정과정을 거치다보면 일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기존의 교육과정 정책들과 연계하여 정합성 있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모고 배점기준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6점]
 - 김 교사가 제기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3가지 제시 [4점] → 워커의 자연주의적 모형
 - 박 교사가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함양 방안 각각 2가지 제시 [4점]
 - 장 교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장학 유형의 개념과 장점 2가지 제시 [3점]
 - 이 교사가 언급한 철수와 영철이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단계 특징 각각 제시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현재 학교사회가 당면한 교사의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2 '2번 논점(PBL)' 강조한 그대로 적용!!!

(1) 기출 문제 (2번 논점: PBL)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위커(D.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4점]
 -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 [4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가지,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유형의 개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이 적절할 것 [2점]

(2) 적용 근거 (2번 논점: PBL)

1) 9-11월 모의고사반 (10회 문제)

① 모고 제시문

수업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생활과 관련된 <u>비구조화된</u> 문제들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할 것 •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종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 • 소그룹을 통한 <u>협동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u> 병행하도록 하며, 학습자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학습활동을 주도하도록 할 것
-------	---

② 모고 배점기준

<배 점>

- 논술의 구성 요소 [총 15점]
 - '교육과정 개발'에 나타난 교육과정의 조직형태 및 학습경험 선정의 원칙 3가지 [4점]
 - '수업설계'에 제시된 교수설계이론의 유형 및 교수이론이 지향하는 주요 기능 2가지 [3점] → PBL (문제중심학습)
 - '평가 방향'에 나타난 평가 유형의 특징 및 평가 시 고려 사항 각각 2가지 [4점]
 - '지도력'에서 강조한 지도성 유형 및 그 특징 3가지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구성 요소와 '자유학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사의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3 '3번 논점(준거참조평가/자기참조평가)' 강조한 그대로 적용!!!

(1) 기출 문제 (3번 논점: 준거/자기참조평가)

<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내용 [총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 교사가 제안하는 위커(D.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4점] -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 [4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가지,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유형의 개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이 적절할 것 [2점]

(2) 적용 근거 (3번 논점: 준거/자기참조평가)

1) 7-8월 문풀반 (14회 문제) / 9-11월 모의고사반 (14회 문제)

① 모고 제시문(1)

유형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평가기준을 수업목표에 두고 학생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u> • <u>수업목표의 도달여부를 기준으로 성취수준을 %(백분율)로 표시한다.</u> • <u>학생의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u>
-----	---

① 모고 제시문(2)

<p>어머니 : 좋은 생각이시네요. 철수의 학업성취도는 어느 정도 일까요? 이번 기말고사 성적을 보니 저조한 것 같아요.</p> <p>김 교사 : 철수의 성적을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철수의 입장에서 <u>성장 가</u> <u>능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u> 저는 철수가 학년 초에 비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u>싶습니다. 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능력의 향상 정도라고 보아야 합니다.</u></p>

② 모고 배점기준(1)

<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구성 요소 [총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1에 나타난 평가유형의 종류 3가지 [4점] - <u>유형2에서 고려하는 평가유형의 특징과 장점 각각 2가지 [4점]</u> → 준거참조평가 - 유형3에 나타난 평가유형의 도구 제작 시 고려사항 3가지 [3점] - 유형4에 나타난 평가유형의 특징과 그 평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 조건 각각 2가지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구성 요소와 '평가자로서의 교사의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② 모고 배점기준(2)

<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구성 요소 [총 1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동기이론에 근거한 철수의 학습자 특성과 교육적 처치 2가지 논술 [4점] - 김 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협동학습의 특징과 SNS에 기반한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 각각 2가지 [4점] - 김 교사의 평가 방법 유형의 장점 및 단점 각각 2가지 [4점] - <u>다문화 교육에 관한 학부모와 김 교사의 관점 차이와 김 교사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교육의 방향 2가지 [4점]</u> → 성장참조평가 ○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4점]

적중!

4 '4번 논점(동료장학)' 강조한 그대로 적용!!!

(1) 기출 문제 (4번 논점: 동료장학)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위커(D.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4점]
 -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 [4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가지,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유형의 개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이 적절한 것 [2점]

(2) 적용 근거 (4번 논점: 동료장학)

1) 9-11월 모의고사반 (7회 문제), (29회 문제)

① 모고 제시문(1)

장 교사 : 학교 교육과정 개발도 중요하지만,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교사는 과거 수업의 행태에서 벗어나 어떤 수업이 효과적이며 학생의 행복한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끼리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력하여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모고 제시문(2)

이 교사 : 학교 수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교사들이 자율성과 협동성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사들이 동료적 관계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개인의 전문적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학교의 조직적 발달까지 도모할 수 있거든요.

② 모고 배점기준(1)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6점]
 - 김 교사가 제기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3가지 제시 [4점]
 - 박 교사가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함양 방안 각각 2가지 제시 [4점]
 - 장 교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장학 유형의 개념과 장점 2가지 제시 [3점] → 동료장학
 - 이 교사가 언급한 철수와 영철이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의 발달단계 특징 각각 제시 [4점]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현재 학교사회가 당면한 교사의 과제'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적중!

② 모고 배점기준(2)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자유학기제의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 각각 2가지 제시 [4점]
 - 매슬로우(Maslow)의 관점에서 철수의 학습동기 저하의 원인을 밝히고, 학습동기 향상 방안 2가지 제시 [3점]
 - 인지부하이론의 관점에서 작업기억의 한계 용량 극복 방안과 외생적 인지부하를 줄이기 위한 멀티미디어 설계 원리 각각 2가지 [4점]
 - 동료장학의 방법과 장점 각각 2가지 제시 [4점] → 동료장학의 방법
-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 논술의 내용과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과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3점]
 - 표현의 적절성 [2점]

※ 2018 대비 주요 쟁점목록(체크 표시 특히 유의): 마지막 짝기 그대로 적중!!!

[1] 교육과정

주요 쟁점	최종 점검
워커의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모형(단계, 특징, 장단점) ✓	
아이즈너 예술적 접근모형(목표 유형, 평가기술) ✓	

적중!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주요 쟁점	최종 점검
문제중심학습(특징, 구성요소, 교육적 가치) ✓	
상황학습이론(설계원리, 주요 개념,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도제) ✓	

적중!

[3] 교육평가

주요 쟁점	최종 점검
준거지향평가(특징, 장단점) ✓	
성장지향평가개념, 장단점) ✓	
능력지향평가개념, 장단점) ✓	

적중!

[4] 교육행정

주요 쟁점	최종 점검
동료장학(방법, 장단점) ✓	
자기장학(개념) ✓	

적중!

출제경향과 기출분석

[1] 출제 경향

1. 출제 경향: 작년에 비해 다소 평이한 수준(위커모형과 준거참조평가의 개인차 해석이 주요 변별력 요소), 4개 영역(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서 골고루 출제+ 배점 기준 세분화+ 매우 정치하고 논리적인 문제 ⇨ **질 좋은 타당도가 높은 문제**
2. 특이 사항: **모의문제에서 모두 출제 1순위로 강조하며 다루었던 문제들이며, 또 마지막 강의에서도 특별히 짚어주었던 논점들만 다 출제되었음**
3. 내년 경향: 올해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 높음

[2] 기출 분석

1. 논술 주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 각 본문의 내용과 연계할 것(2점)
2. 논점 분석
 - (1) 1번 논점(위커 모형): **모고(9-11월 7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특별히 강조**
 - ① 위커 모형의 명칭(1점): 자연주의적 모형(실제적 모형, 속의 모형)
 - ②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3점): 단계와 특징,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서술해야 함 ⇨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표방됨, 속의 과정이 강조됨, 실제적 상황이 강조됨/ 예비답안: 대화 강조, 합의 강조, 상황과 맥락 강조, 현실적 교육과정 개발 등
 - (2) 2번 논점(PBL): **모고(9-11월 10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교수방법론의 출제 가능성 1순위로 강조**
 - ① 학습자 역할(2점): 협동학습자, 자기주도적 학습자
 - ② 문제의 특성(1점):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
 - ③ 그 특성의 학습 효과(1점):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다각적인 해석능력 및 전략적 사고력, 문제해결적 능력, 가설추론적 능력 등

(3) 3번 논점(준거참조·자기참조평가): **모고(7-8월 14회/9-11월 14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 특별히 강조**

- ① 평가유형 명칭(1점): 준거참조평가(준거지향평가, 목표지향평가, 절대평가)
- ②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1점):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서 오는 결과이며, 이 개인차는 교육의 작용과 노력에 의해 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신념(즉, 교육적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봄) ⇨ / 반면, 표준참조평가는 집단을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차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며, 개인차가 클수록 교육평가가 성공적인 것으로 봄
- ③ 평가유형 개념(2점): 능력지향평가(학생의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성장지향평가(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4) 4번 논점(동료장학): **모고(9-11월 7회 및 29회) 및 마지막 짝기에서 출제 가능성 특별히 강조**

- ①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1점): 동료장학(교사의 수업개선과 전문적 성장을 위해 둘 이상의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
- ② 동료장학 활성화 방안(2점): 동료 간 수업연구 활성화, 공동의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 활성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 간 멘토링 활성화, 동학년이나 동교과 교사 간의 협의 장학 등 다소 광범위

2018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육학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1교시	1문항 20점	시험 시간 6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A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조사 결과에 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 중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은 (1) 교육과정, (2) 수업, (3) 평가, (4) 장학에 관한 것이다. (1)~(4)를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십시오. [20점]

박 교사 : 선생님, 우리 학교 학생의 학업 특성을 보면 학습 흥미와 수업참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학업성취, 학습흥미, 수업참여의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김 교사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학교 교육과정도 이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교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과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절한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교사 : 네, 그렇다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업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 교사 : 우리 학교 학생에게는 학습흥미와 수업참여를 높이는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연구수업에서 문제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문제를 잘 구성하지 못했는지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학생의 역할을 안내하고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 교사 : 그렇군요. 이처럼 수업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게 되면 평가의 방향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평가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흥미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 교사 :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미리 설정한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평가유형이 적합해 보입니다.

김 교사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형 외에 능력참조평가와 성장참조평가도 제안할 수 있겠네요.

박 교사 : 좋은 생각입니다.

김 교사 : 그런데 저 혼자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은 힘들어요. 선생님과 저에게 이 문제가 공동 관심사이니, 여러 선생님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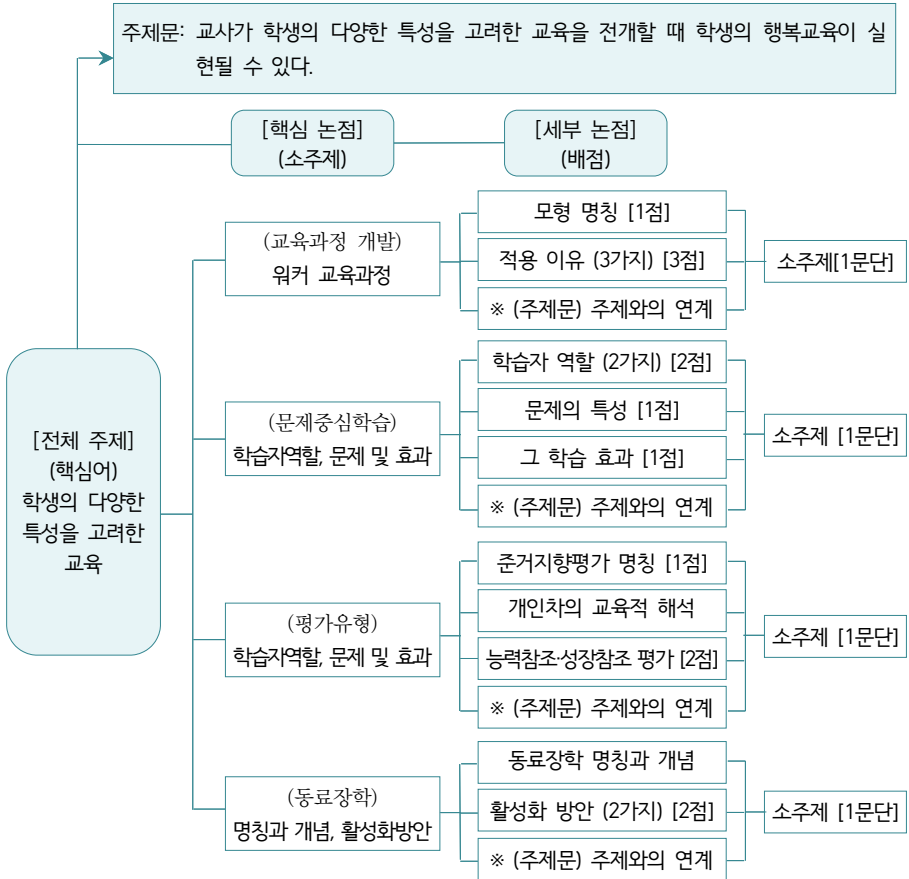
[그림] A 중학교 학생들의 학업 특성
(*3가지 변인의 점수는 서로 비교 가능한 것으로 가정함)

<배 점>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D. 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4점]
 -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 [4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가지,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유형의 개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3점]
- 논술의 구성과 표현 [총 5점]
 -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하고 [1점], 주어진 주제와 연계할 것 [2점]
 - 표현이 적절할 것 [2점]

논제 파악

[도해조직자(graphic organizer)]



[배점 분석] ('내용 영역')

< 배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의 내용 [총 15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D. F. 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주의적 모형의 명칭(1점),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 3가지(3점) [4점] - 박 교사가 언급하는 PBL(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 PBL에 적합한 문제의 특성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역할 2가지(2점), 문제의 특성(1점)과 그 특성이 주는 학습 효과 1가지(1점) [4점] -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의 명칭과 이 유형에서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 1가지, 김 교사가 제안하는 2가지 평가유형의 개념 [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거참조평가의 명칭(1점)과 개인차에 대한 교육적 해석(1가지)(1점), 능력참조평가·성장참조평가 개념(2점) [4점] -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 유형의 명칭과 개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장학의 명칭과 개념(1점), 그 활성화 방안 2가지(2점) [3점]

[답안 구상]

[주제문] 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전개할 때 학생의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전체 주제 (대주제)	핵심 논점 (소주제)	세부 논점 (배점)	중심 내용 + 설명/논증(제시문 분석적용)		배점	출제 영역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	(교육 과정 개발) 워커 교육과정 개발모형	① 모형 명칭 [1점]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토대, 속의, 설계의 단계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자연스런 과정을 보여줌	4점	교육 과정
		② 적용 이유 (3가지) [3점]	㉠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표방 ㉡ 속의 과정이 강조 ㉢ 실제적 상황이 강조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표방→공감대를 형성 ㉡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서 가장 유망한 교육과정 실천 대안을 검토 ㉢ 타일러 식의 이론적 탐구에서 벗어나서 학교, 학급, 학생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구체화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표방되고 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문제중심학습) 학습자역할, 문제해결, 문제 및 효과	① 학습자 역할 (2가지) [2점]	㉠ 협동학습 수행 ㉡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	㉠ 협동학습→문제와 관련된 가설 설정→사실 확인, 학습과제 설정→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 자기주도적 학습→여러 가지 정보 수집, 분석→자신에게 부여된 학습과제 해결→그 결과 그룹 구성원들과 공유	4점	교수 방법 및 교육 공학
② 문제의 특성 [1점]	비구조화된 실제적 문제	다양한 접근과 해결이 가능				
③ 그 학습 효과 [1점]	학습 효과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 다각적인 해석능력과 전략적 사고력, 문제해결적 능력이 함양				
* 주제와의 연계	PBL과 같은 학습자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가 보장되는 수업 설계, 운영→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수업장면에서 실천					

(평가유형) 준거지향 · 능력지향 · 성장지향	① 준거지향평가 명칭 [1점]	준거지향평가	평가기준을 학습목표에 두고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중시	4점	교육 평가
	② 개인차의 교육적 해석 [1점]	개인차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서 오는 결과이며, 이 개인차는 교육적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봄		
	③ 능력참조평가/ 성장참조평가 [2점]	㉠ 능력참조평가 ㉡ 성장참조평가	㉠ 학생의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 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개별적 성취수준이 강조되는 다양한 평가도구 개발, 시행→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비로소 그 교육적 효과			
(동료장학) 명칭과 개념, 활성화방 안	① 동료장학 명칭과 개념 [1점]	동료장학	교사의 수업개선과 전문적 성장 → 둘 이상의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	3점	교육 행정
	② 활성화 방안 (2가지) [2점]	㉠ 동료 간 수업연구를 활성화 ㉡ 공동의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를 활성화	㉠ 수업과 관련된 연구과제 공동으로 선정, 공개수업을 통해 문제점 개선,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짝을 이루어 멘토링 장학 ㉡ 동료교사 간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일련의 협의를 통하여 서로 경험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며 공동의 관심사나 과업을 해결		
	※ 주제와의 연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이 보다 내실화되려면 동료적 과정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학교교육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2018학년도 교육학 논술 모범답안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의 행복교육을 중시함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는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를 높이는 수업과 평가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동료장학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본론

박 교사가 제안하는 워커(Walk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자연주의적 모형은 토대, 숙의, 설계의 단계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자연스런 과정을 보여준다. 이 모형을 교육과정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신념과 가치가 표방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인별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 교과를 중시하는 의견, 환경을 중시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표방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숙의 과정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서 가장 유망한 교육과정 실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실제적 상황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타일러 식의 이론적 탐구에서 벗어나서 학교, 학급, 학생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표방되고 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교사는 수업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박 교사가 언급한 PBL(문제중심학습)은 문제로부터 학습이 시작되므로 학습자의 역할과 문제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PBL에서 학습자의 역할을 제시하면 첫째, 협동학습을 수행한다. 문제가 제시되면 학습자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와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학습과제를 설정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전개한다.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학습과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그룹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한편, PBL에 적합한 문제는 다양한 접근과 해결이 가능한 비구조화된 실제적인 문제라는 특성이 있다. 문제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가 유발되고, 다각적인 해석능력과 전략적 사고력, 문제해결적 능력이 함양되는 학습효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교사는 PBL과 같은 학습자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가 보장되는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수업장에서 실천될 수 있다.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수업에 반영되면 평가의 방향을 달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유형은 준거참조평가이다. 준거참조평가는 평가기준을 학습목표에 두고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중시하는 평가유형이다. 이런 준거참조평가에서 개인차는 교육의 누적적 실패에서 오는 결과이며, 이 개인차는 교육적 노력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김 교사가 제안하는 능력참조평가와 성장참조평가는 평가의 개인화를 강조하는 자기참조평가의 유형에 해당한다. 능력참조평가는 학생의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이다. 개인의 능력과 수행결과를 비교하여 성적을 판정한다. 성장참조평가는 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이다. 현재의 성취수준과 과거의 성취수준 간의 차이점으로 성적을 판정한다. 이런 점에 근거할 때 학생의 상대적 위치보다는 개별적 성취수준이 강조되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할 때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비로소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사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와 같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료교사 간의 협력과 공유가 필요한 이유다. 김 교사가 언급하는 교내장학은 동료장학이다. 동료장학이란 교사의 수업개선과 전문적 성장을 위해 둘 이상의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장학을 말한다. 동료장학을 활성화하려면 첫째, 동료 간 수업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동료교사들이 수업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공개수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짝을 이루어 멘토링 장학을 실천할 수 있다. 둘째, 공동의 관심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를 활성화한다. 동료교사 간에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일련의 협의를 통하여 서로 경험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며 공동의 관심사나 과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이 보다 내실화되려면 교사 상호 간에 함께 협동하는 동료적 과정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학교교육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III. 결론

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전개할 때 학생의 행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각기 다른 개별적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흥미와 수업참여를 높이는 수업과 평가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동료장학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MEMO

너의 열정을
응원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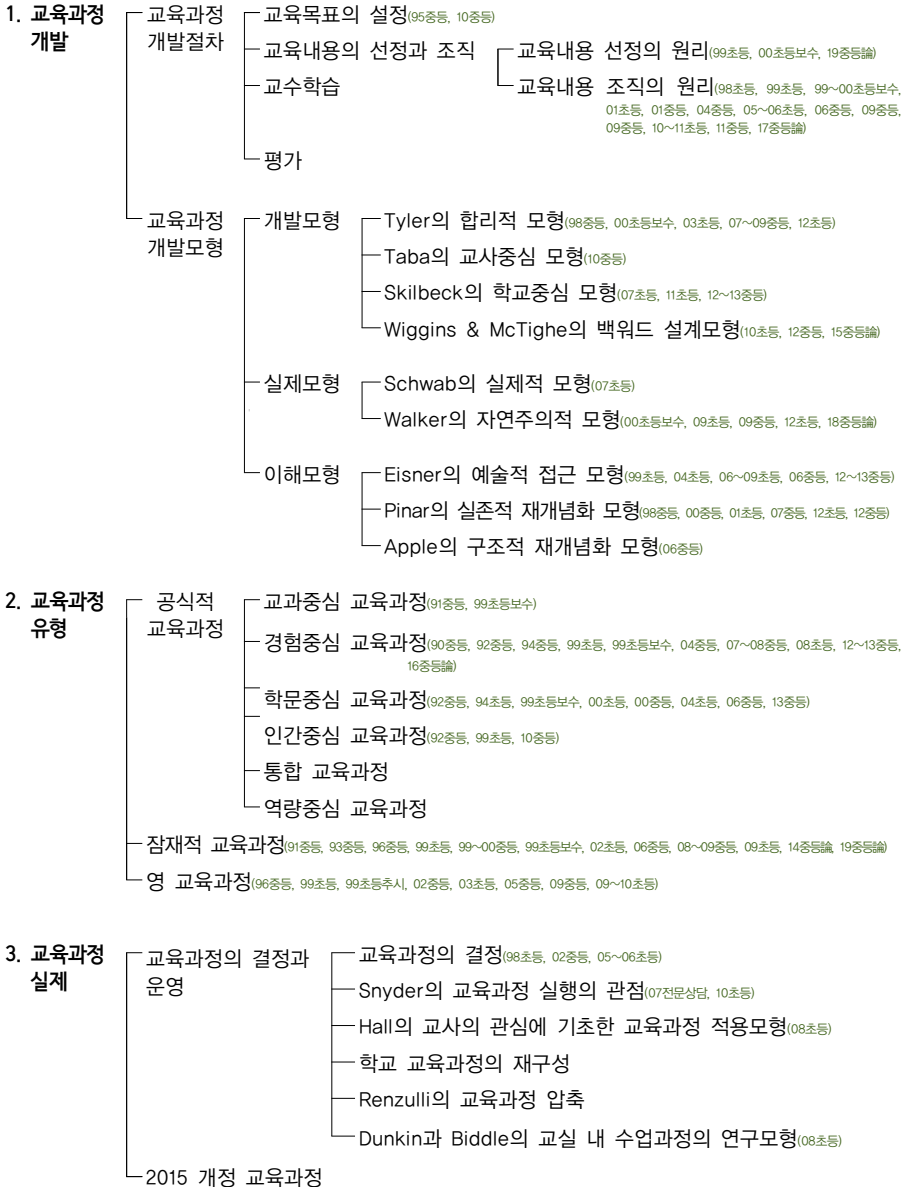
PART 7

교육학 논술 Thinking Ma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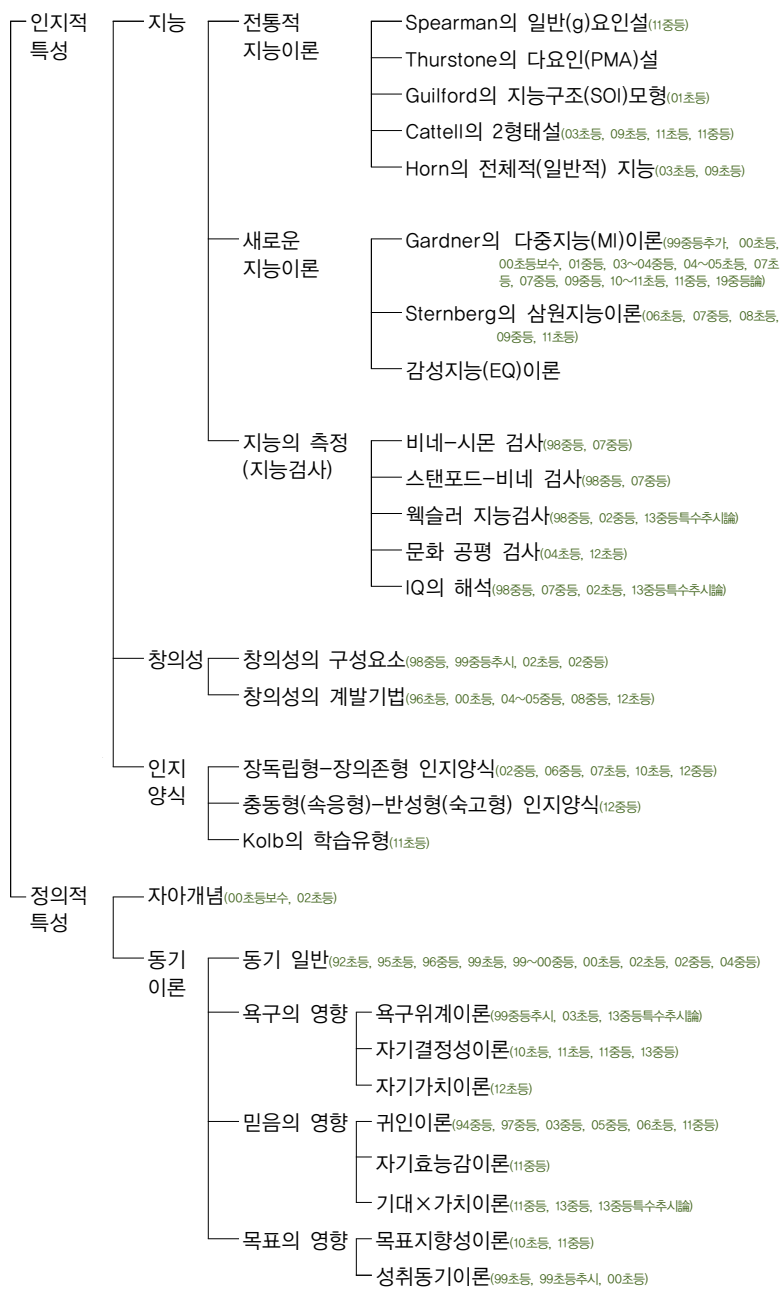
교육학 논술 Thinking Map

1 교육과정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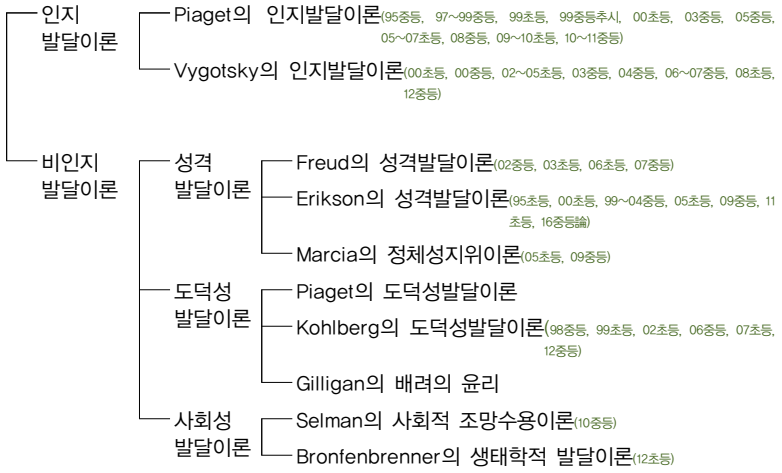


2 교육심리학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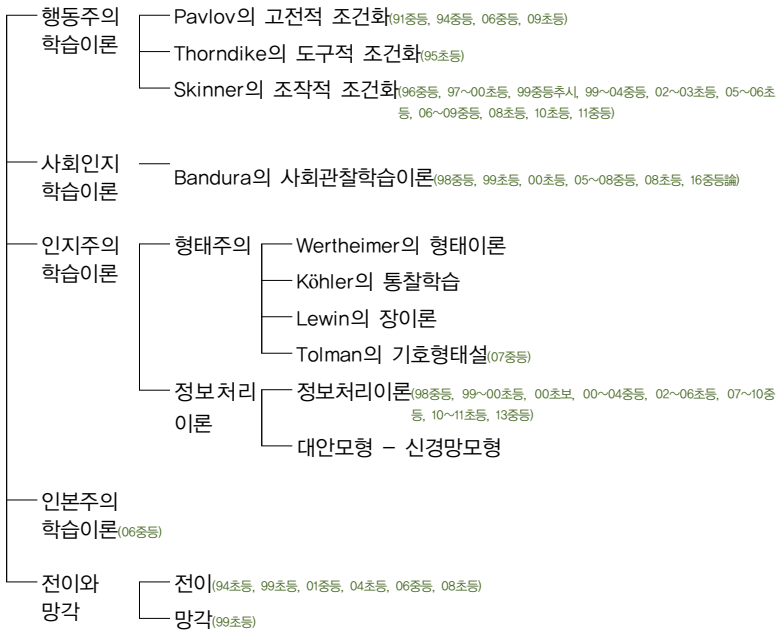
1. 학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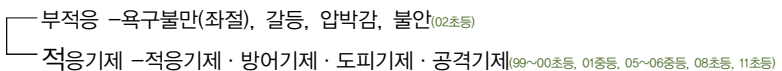
2. 학습자의 발달 (발달이론)



3. 학습자의 학습 (학습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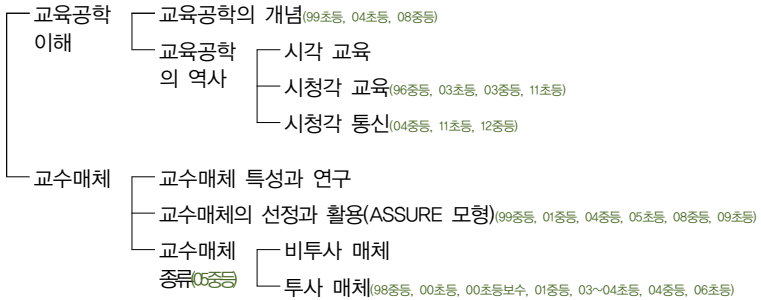
4. 적응과 부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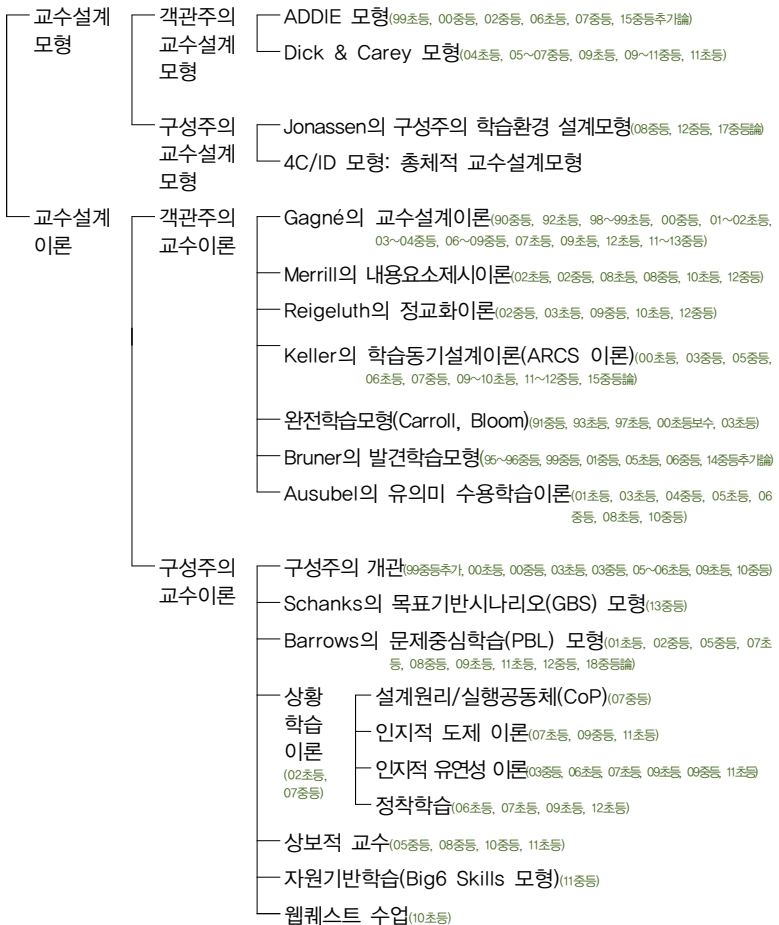
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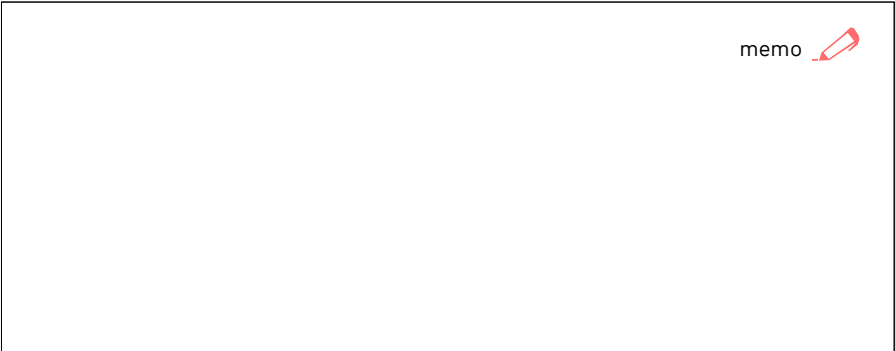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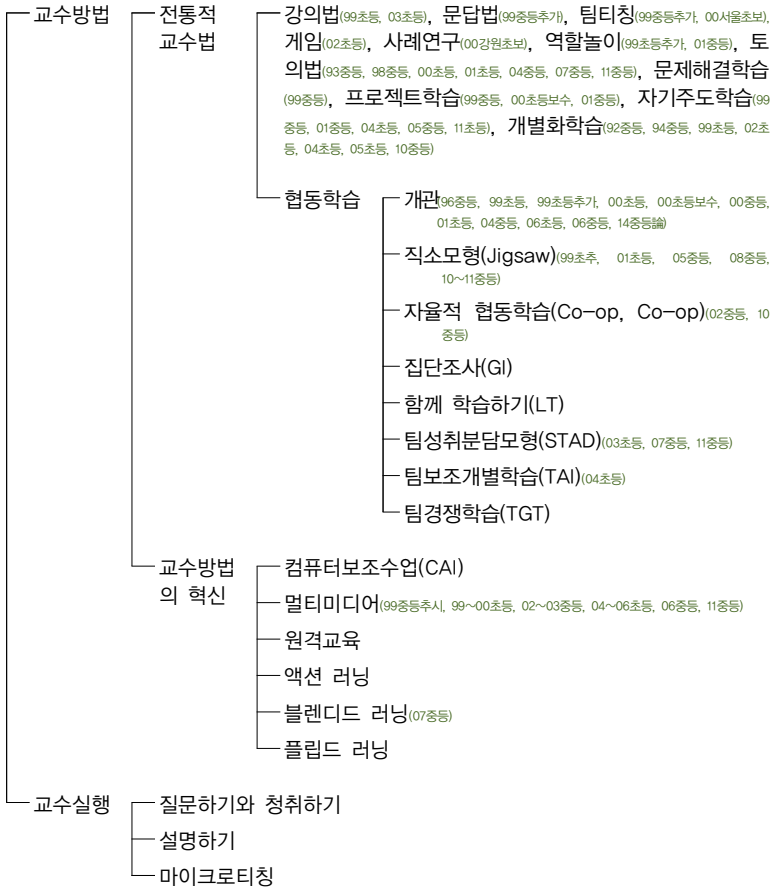
1. 교육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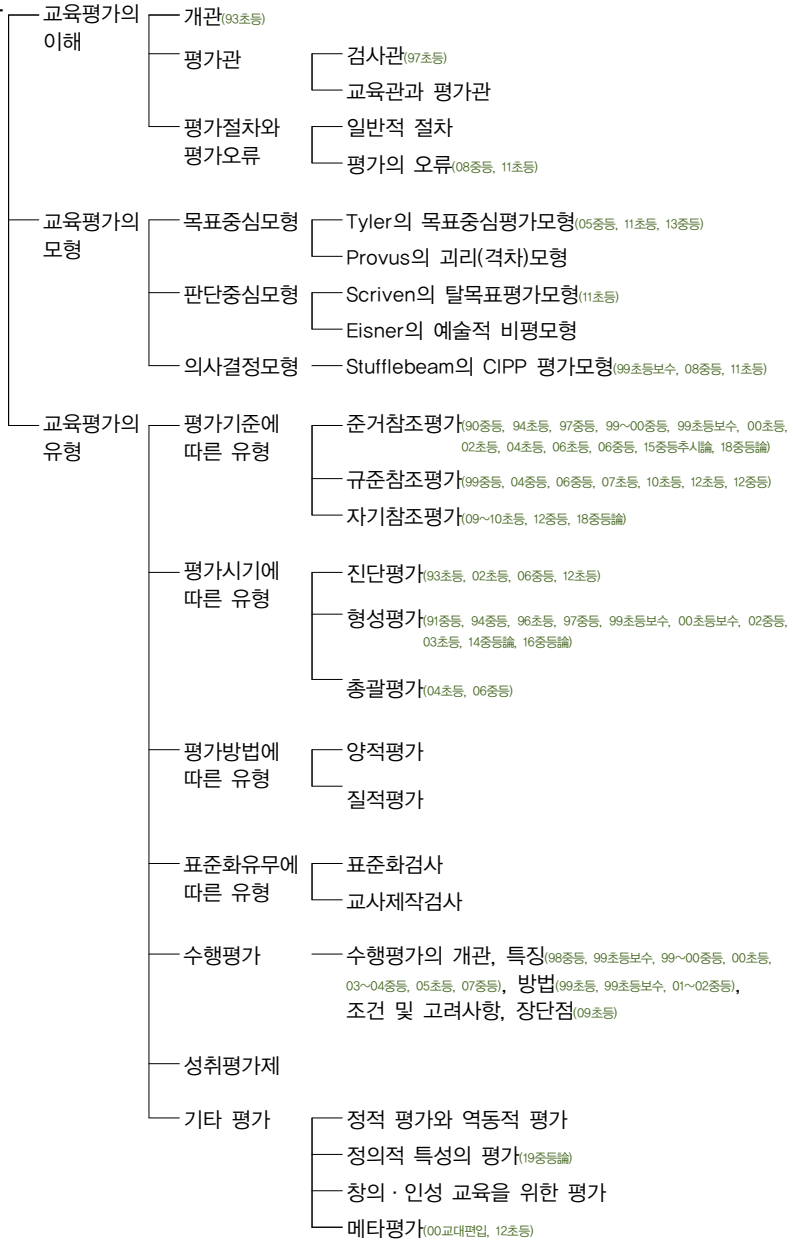
2. 교수설계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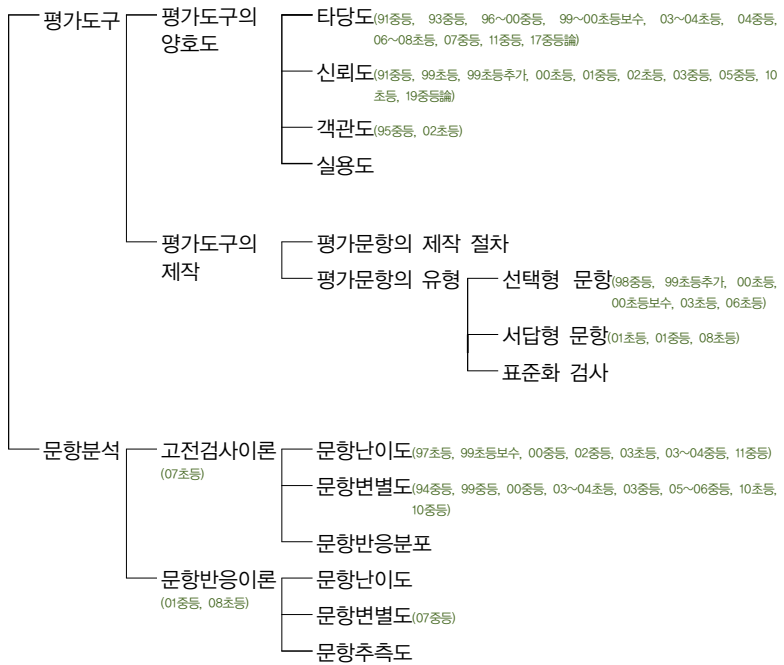
3. 교수방법



1. 교육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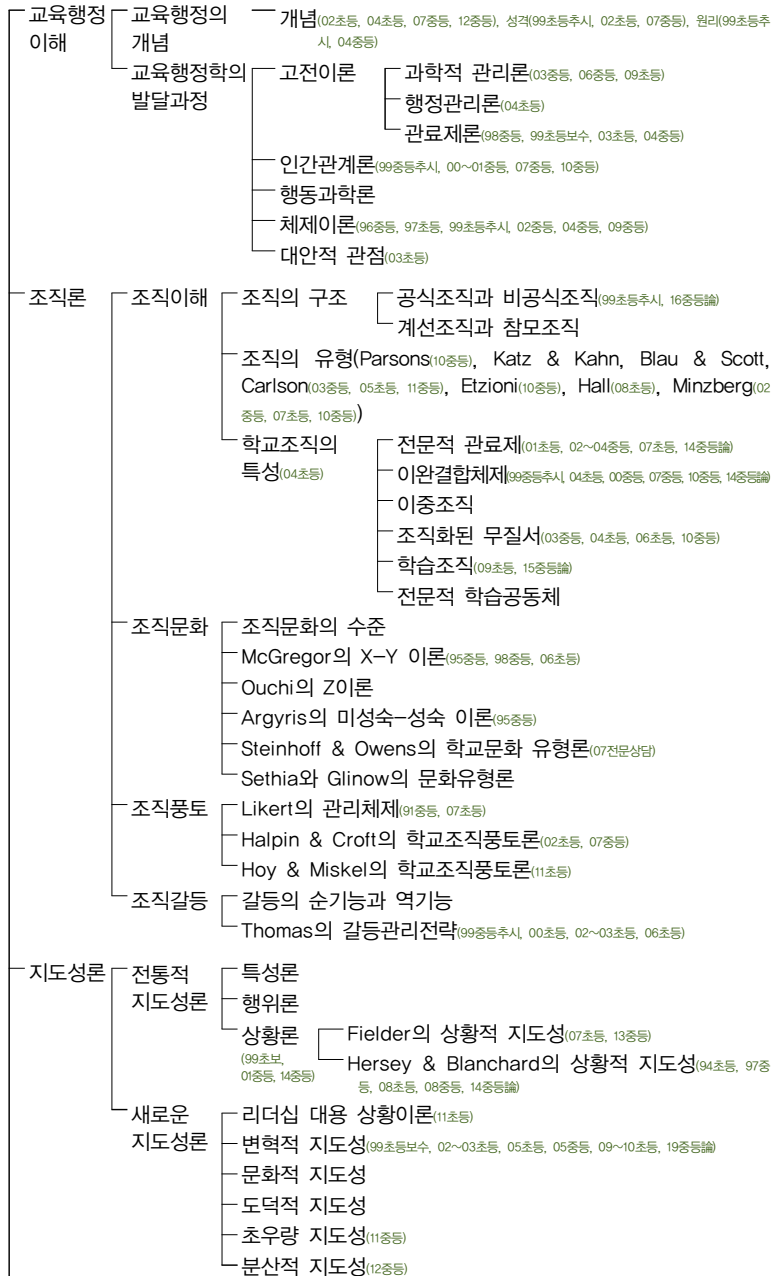
2. 평가도구 (검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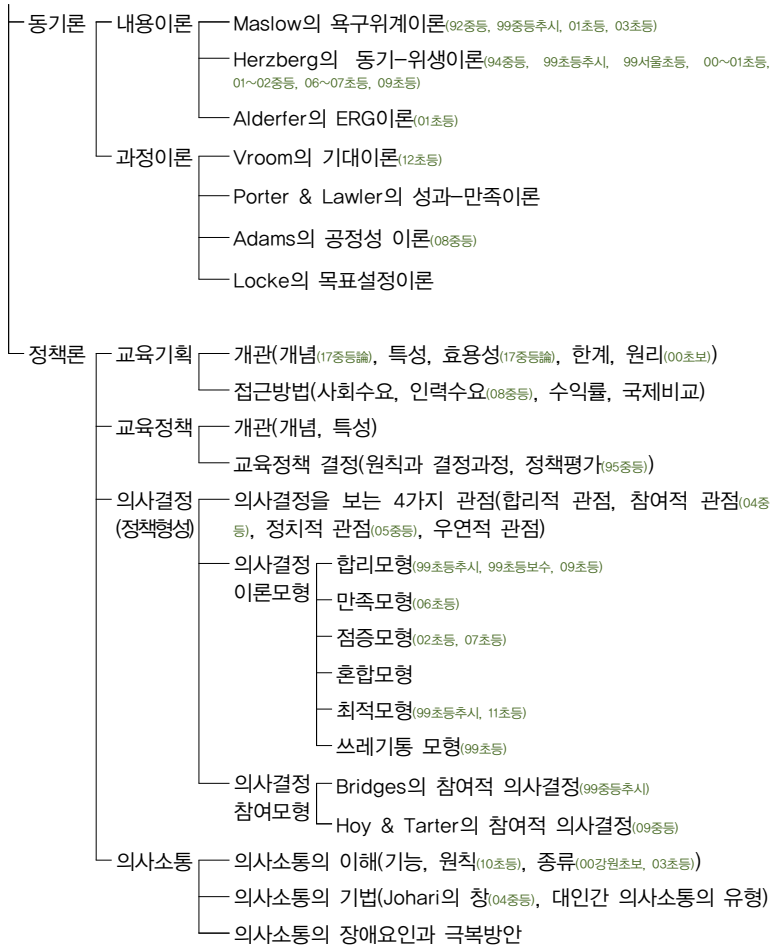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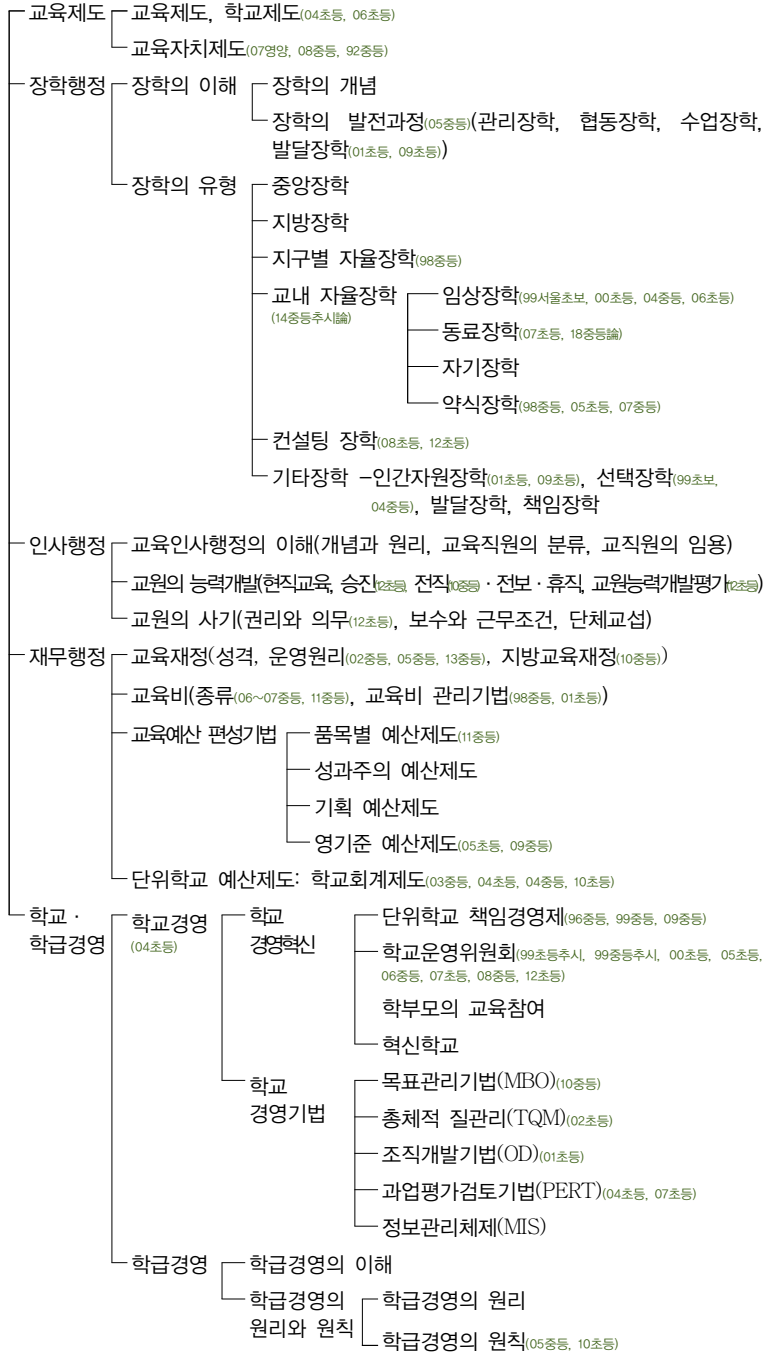
교육행정학 Thinking Map

1. 교육행정의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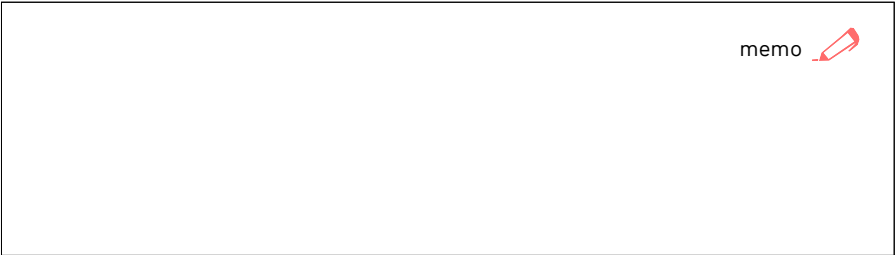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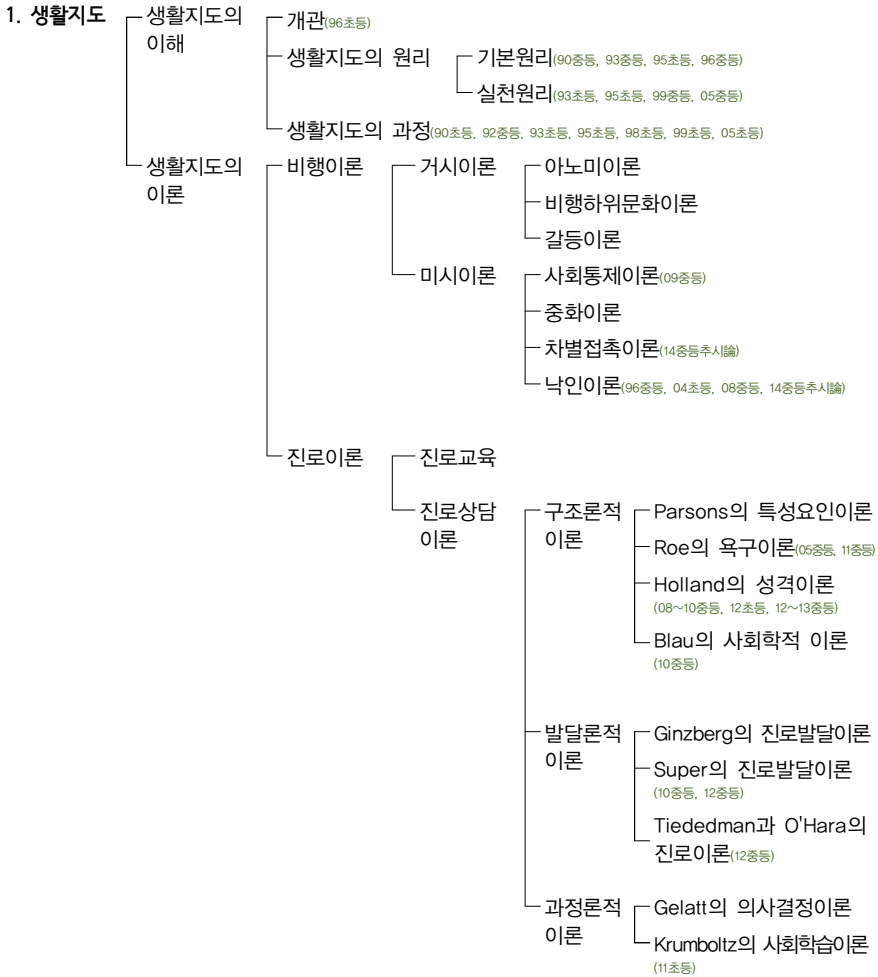


2. 교육행정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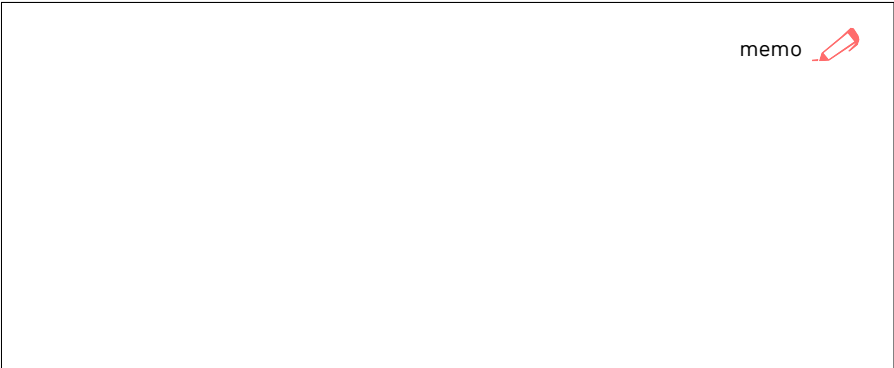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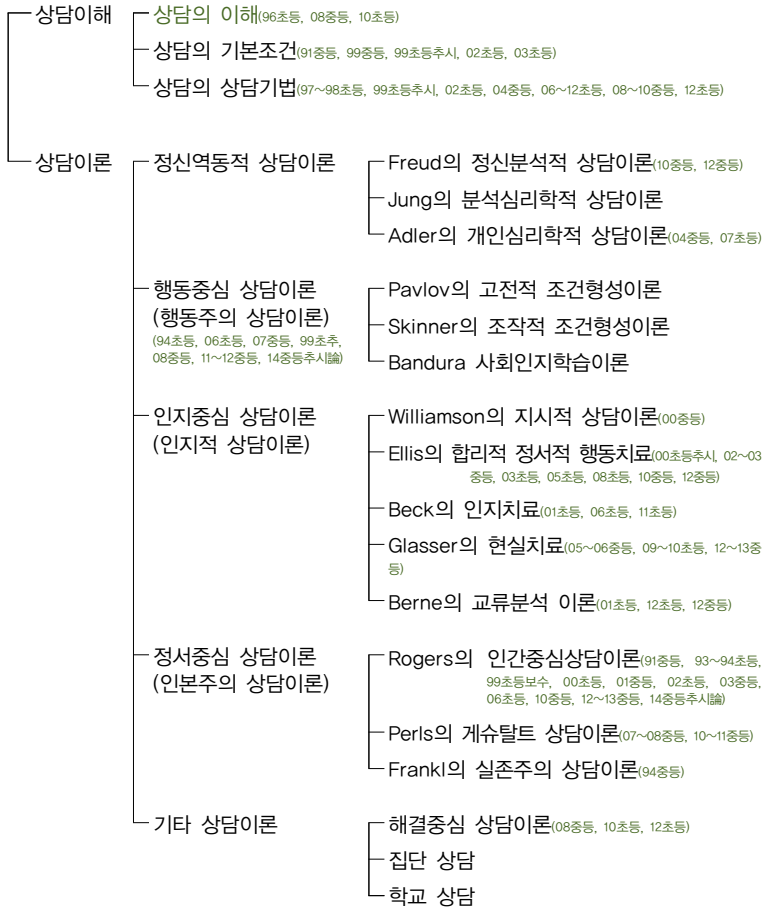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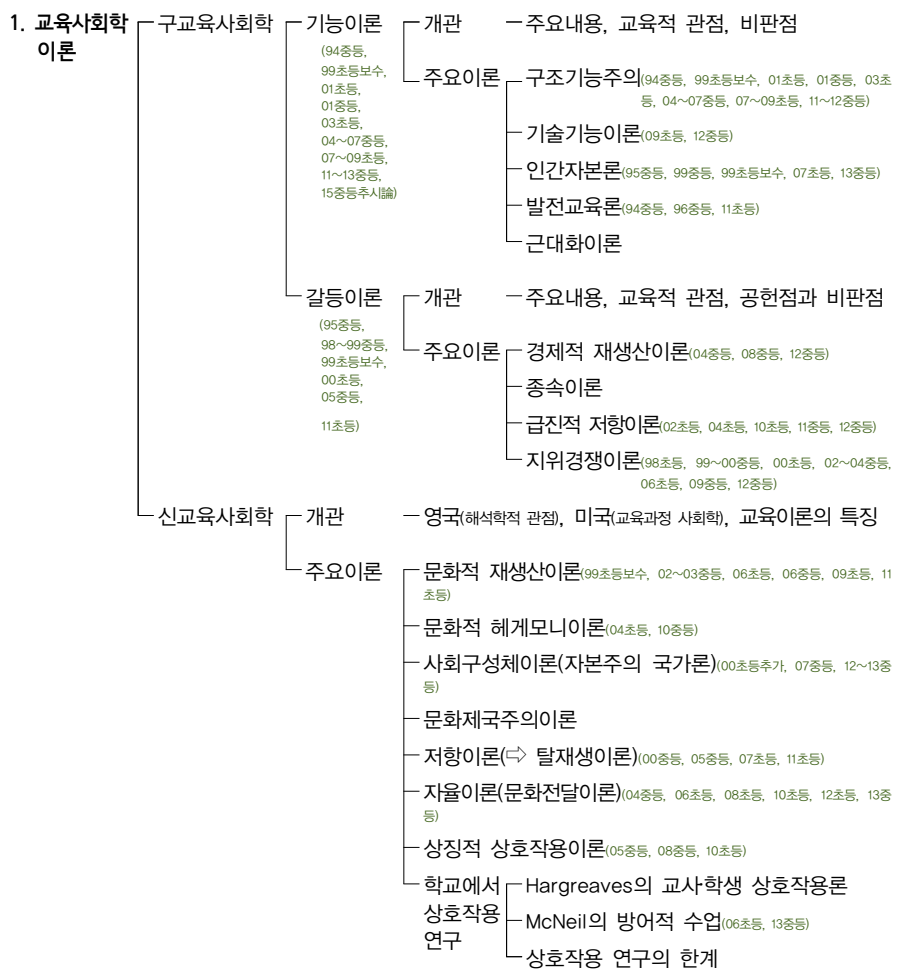
생활지도와 상담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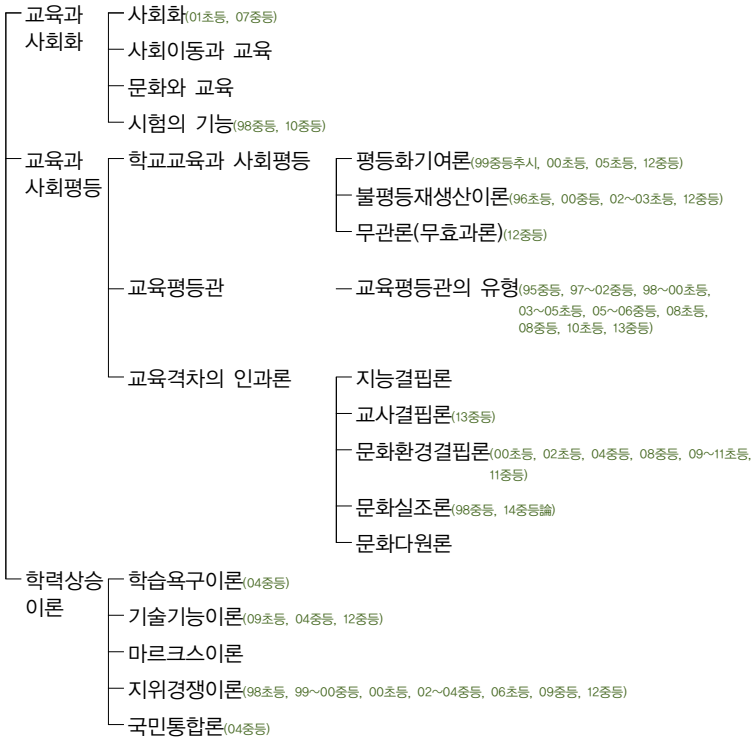
2. 상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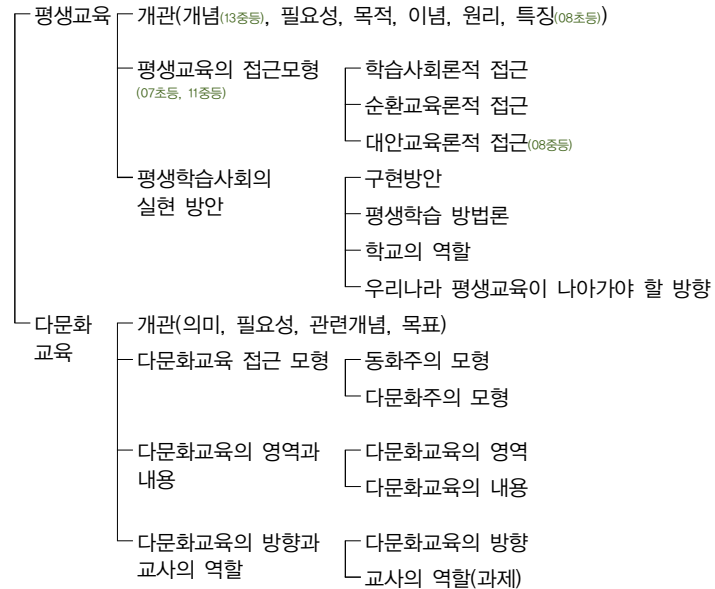
7 교육사회학 Thinking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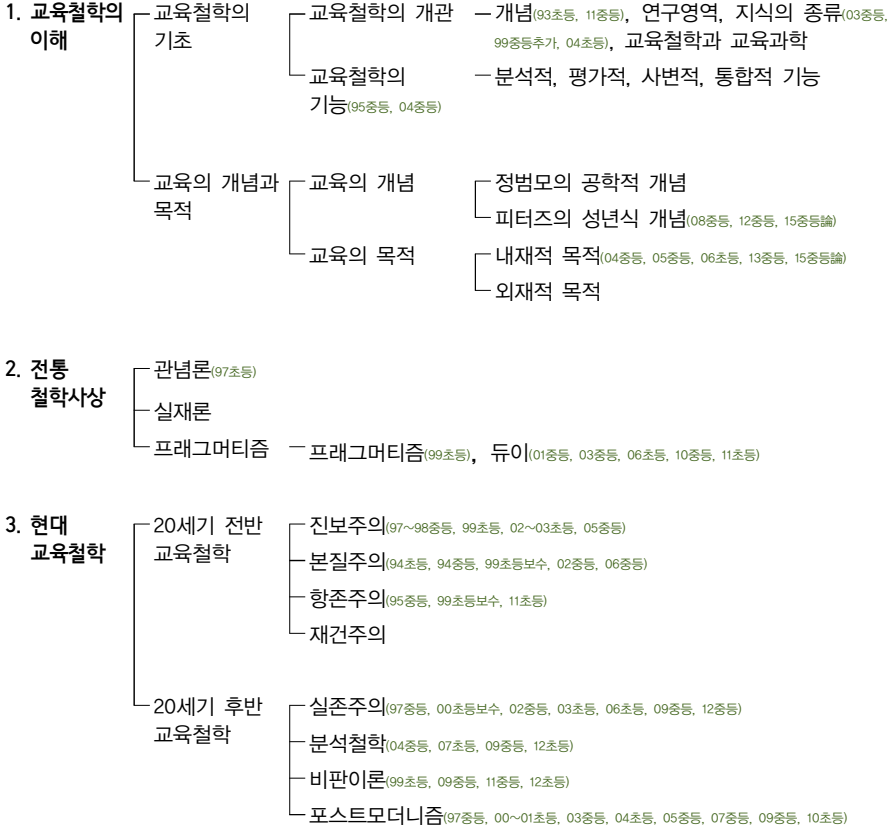


2. 교육과 사회



3. 평생교육과 다문화교육



memo 